



JTRUST

2017년 3월기 제2분기

결산설명자료

2016년 11월

J트러스트 주식회사

1. 결산 포인트

2. 제2분기 결산개요

3. 부문별 실적

4. 영업이익 하반기 전망

5. 향후 성장을 위한 노력

6. 질의응답

대표이사 전무
치바 노부이쿠

대표이사 사장
후지사와 노부요시

APPENDIX(IFRS참고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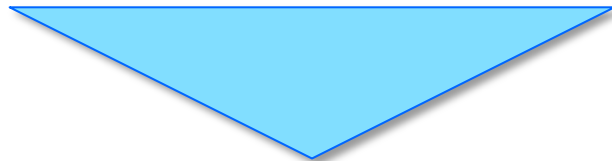
면책사항

- 본 자료에 기재된 예측 등의 정보는 본 자료를 작성한 시점의 당사 인식, 의견, 판단 또는 예측이며 그 실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실제 실적 및 결과와 크게 다를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설명회 및 본 자료는 당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당사 또는 자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 동남아시아금융사업의 J-GAAP은 3개월 늦게 연결결산에 반영합니다.
3개월 결산일 차이(제1분기 : 1월~3월 제2분기 : 4월~6월 제3분기 : 7월~9월 제4분기 : 10월~12월)
- 본 자료에 기재된 IFRS 수치는 당사가 참고수치로 산정한 미감사 수치입니다.
- 한국금융사업 페이지에 기재된 참고환율은 2016년 9월말 시점의 환율이며 동남아시아금융사업 페이지에 기재된 참고환율은 2016년 6월말 시점의 환율입니다.

1. 결산 포인트

대표이사 전무 집행이사
치바 노부이쿠

- J트러스트은행→보수적으로 대손충당금 46억 엔 계상
- 그룹리스사 전환사채→시가평가손 14억 엔 계상
그 후 주가상승, 10월말 시점 시가평가는 9월말 대비 +24억 엔



영업손실 39억 엔은
평가성 손실 합계 **60억 엔의 영향**

일본금융사업



- 안정적인 성장 : 2Q에 영업이익 22억 엔을 계상



한국금융사업



- 부의 영업권 소화 거의 완료, 하반기는 이익증대



- 부의 영업권 영향 10억 엔 + 미실현손실 4억 엔의 영향을 받았으나 2Q에 영업이익 8억 엔을 계상



동남아시아금융사업



- 구조조정 마무리, 하반기 영업흑자전환
- 대손충당금 : 46억 엔 계상
- 구조조정 비용 : 15억 엔 계상(특별손실)



투자사업



- 전환사채 평가손 : 14억 엔

- ▶ 제2분기 실적에 따라 온기실적예상을 수정, 연결영업이익은 42억 엔 확보
- ▶ 전기 41억 엔 영업손실이었으나 **83억 엔의 개선이 예상됨**

온기실적예상수정 상세

단위 : 억 엔

	실적예상 (전회발표)	실적예상 (금회발표)	전년도 실적	전년대비차이
영업수익	982	889	754	+ 135
영업이익	112	42	-41	+ 83
경상이익	114	26	-46	+ 72
모회사주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95	1	-57	+ 58

결산 포인트/온기실적예상 수정(부문별영업이익)

- 한국금융사업 : 부의 영업권 및 미실현손실으로 인해 31억 엔으로 수정
- 동남아시아금융사업 : 대손충당금의 보수적 계상 등으로 인해 -65억 엔으로 수정
- 투자사업 : 전환사채의 이자수익, 전환사채 평가의 등을 고려하여 55억 엔으로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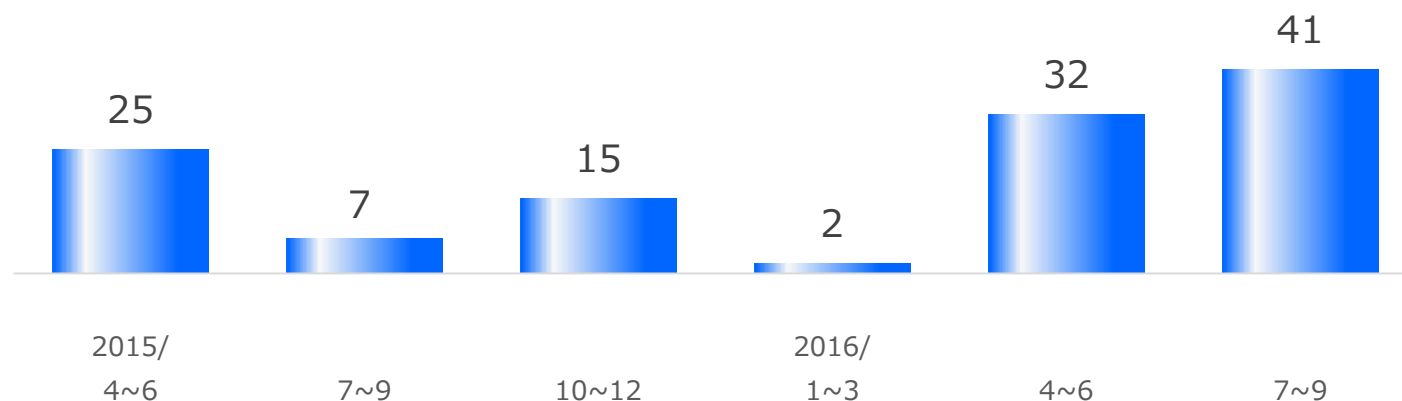
당초 온기실적예상과 금회수정한 예상과의 차이(부문별영업이익)

단위 : 억 엔

영업이익	실적예상(전회)	실적예상(금회)	차이
일본금융사업	39	42	3
한국금융사업	51	31	-20
동남아시아금융사업	3	-65	-68
투자사업	30	55	25
비금융사업	13	5	-8
본사비용/기타	-23	-26	-3
연결영업이익	112	42	-70

▶ 평가성 손실 등을 조정한 베이스이익은 흑자 확보

	2015/4~6	7~9	10~12	2016/1~3	4~6	7~9
영업손익(A)	-19	-3	2	-20	11	-51
평가성 충당 등(B)	44	18	30	23	34	78
투자사업손익(C)	0	8	18	1	13	-14
베이스이익(A+B-C)	25	7	15	2	32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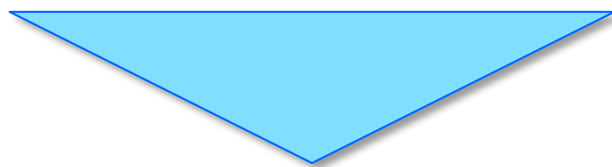


1. 동남아시아금융사업의 부의 유산 제거

- 동남아시아금융사업 : 대손충당금 46억 엔을 보수적으로 일괄 계상
- 동남아시아금융사업 : 구조조정으로 고정비 감축

2. 한국금융사업 : 부의 영업권 소화 거의 완료

- 2015년 3월 시점에 95억 엔이었던 부의 영업권잔액이 5억 엔까지 축소됨



평가손 등의 제거를 통해

하반기부터 경상흑자를 목표로 한다

2. 제2분기 결산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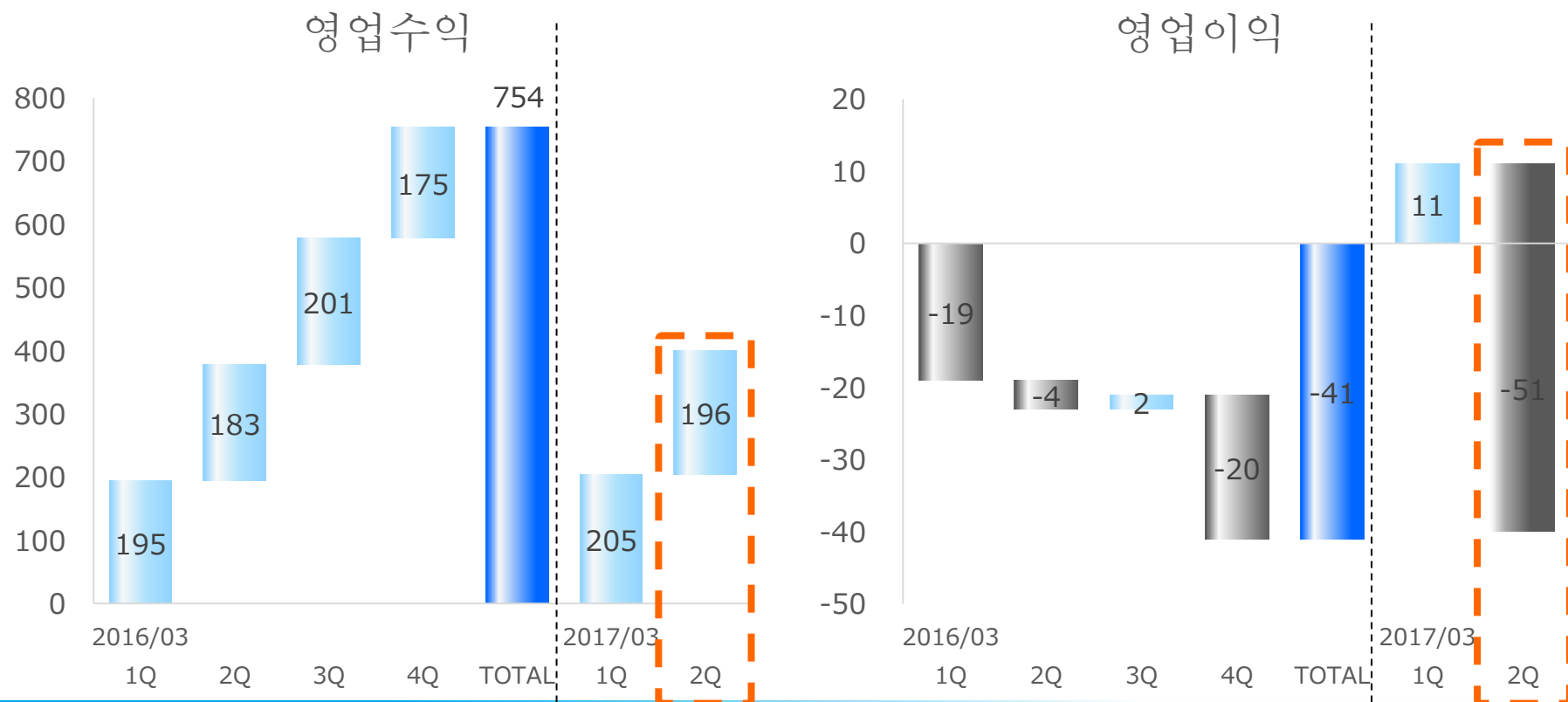
제2분기 결산개요/연결요약(분기별 영업수익·영업이익의 추이)

- ▶ 분기기준 영업수익은 전년동기대비 증가
- ▶ 영업손실 51억 엔은 J트러스트은행의 대손충당금 전입 46억 엔과 그룹리스사 전환사채의 시가평가손 14억 엔의 영향

J-GAAP

연결요약(분기별 영업수익·영업이익의 추이)

단위 : 억 엔



※그래프는 단위미만 반올림

제2분기 결산개요/연결요약(전년동기대비)

- 영업수익은 전년동기대비 24억 엔 증가하여 401억 엔
-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6억 엔 감소하여 -39억 엔
- 경상이익은 제1분기 환차손의 영향으로 -54억 엔

J-GAAP

연결요약(전년동기대비)

	2016/03 2Q	2017/03 2Q	차이
영업수익	377억 엔	401억 엔	+24억 엔
영업이익	-23억 엔	-39억 엔	-16억 엔
경상이익	-22억 엔	-54억 엔	-32억 엔
모회사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이익	-23억 엔	-76억 엔	-53억 엔
조정 후 EBITDA	0.5억 엔	-18억 엔	-18억 엔

조정 후 EBITDA : 영업이익 + 영업권 상각액 + 감가상각액

- 한국금융사업, 동남아시아금융사업 모두 전년동기대비 수익증가
- 일본금융사업은 안정적으로 수익 계상

J-GAAP

부문영업수익(전년동기대비)

	2016/03 2Q	2017/03 2Q	차이
일본금융사업	53억 엔	51억 엔	-2억 엔
한국금융사업	133억 엔	139억 엔	+6억 엔
동남아시아금융사업	61억 엔	68억 엔	+7억 엔
투자사업	8억 엔	21억 엔	+13억 엔
비금융사업	112억 엔	106억 엔	-6억 엔
기타	10억 엔	16억 엔	+6억 엔
합 계	377억 엔	401억 엔	+24억 엔

※비금융사업 : 부동산사업 및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기타 : 상업시설건축업, 시스템사업 등

- 일본금융사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
- 한국금융사업은 흑자가 정착됨
- 동남아시아금융사업은 대손충당금 전입으로 인해 이익이 감소함

J-GAAP

영업이익(전년동기대비)

	2016/03 2Q	2017/03 2Q	차이
일본금융사업	15억 엔	22억 엔	+7억 엔
한국금융사업	-1억 엔	8억 엔	+9억 엔
동남아시아금융사업	-34억 엔	-60억 엔	-26억 엔
투자사업	7억 엔	6억 엔	-1억 엔
비금융사업	3억 엔	1억 엔	-2억 엔
기 타	-13억 엔	-16억 엔	-3억 엔
합 계	-23억 엔	-39억 엔	-16억 엔

※비금융사업 : 부동산사업 및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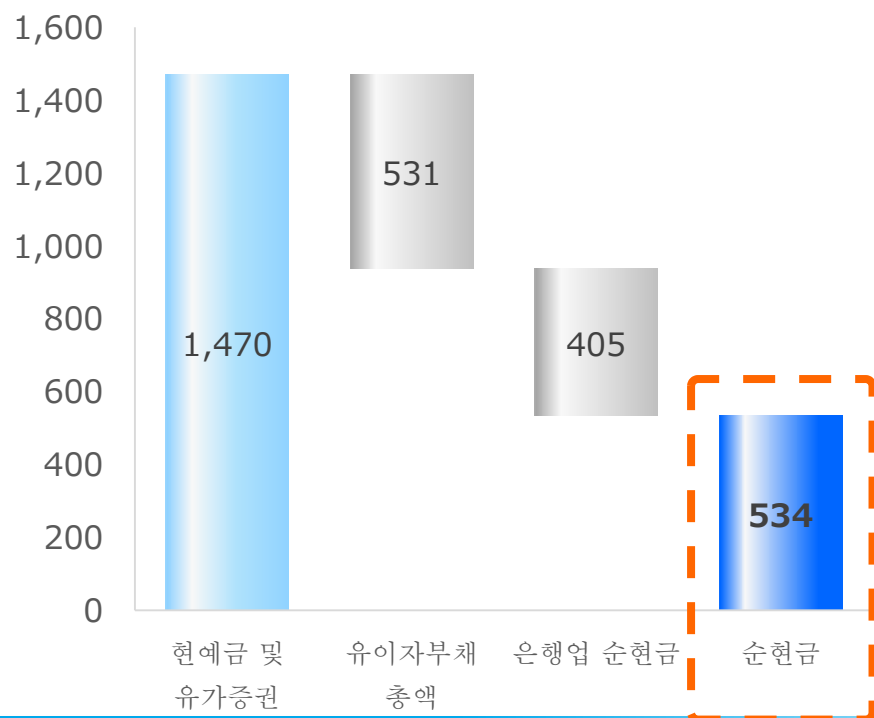
※기타 : 상업시설건축업, 시스템사업 등

- ▶ 당분기에 약 73억 엔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였으나 순현금은 2016년 3월말 이후 44억 엔 증가하여 578억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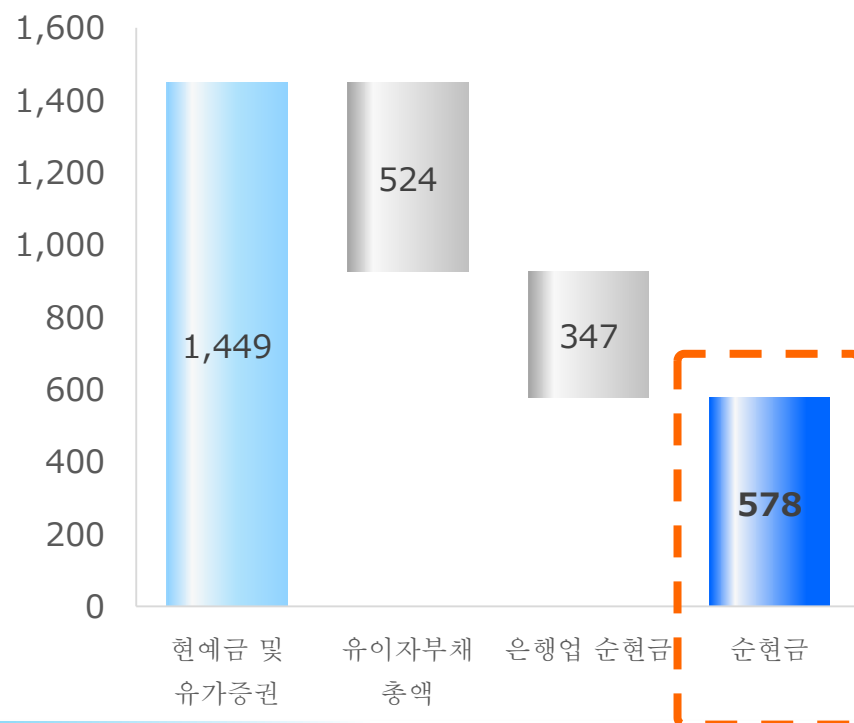
순현금 추이

단위 : 억 엔

2016년 3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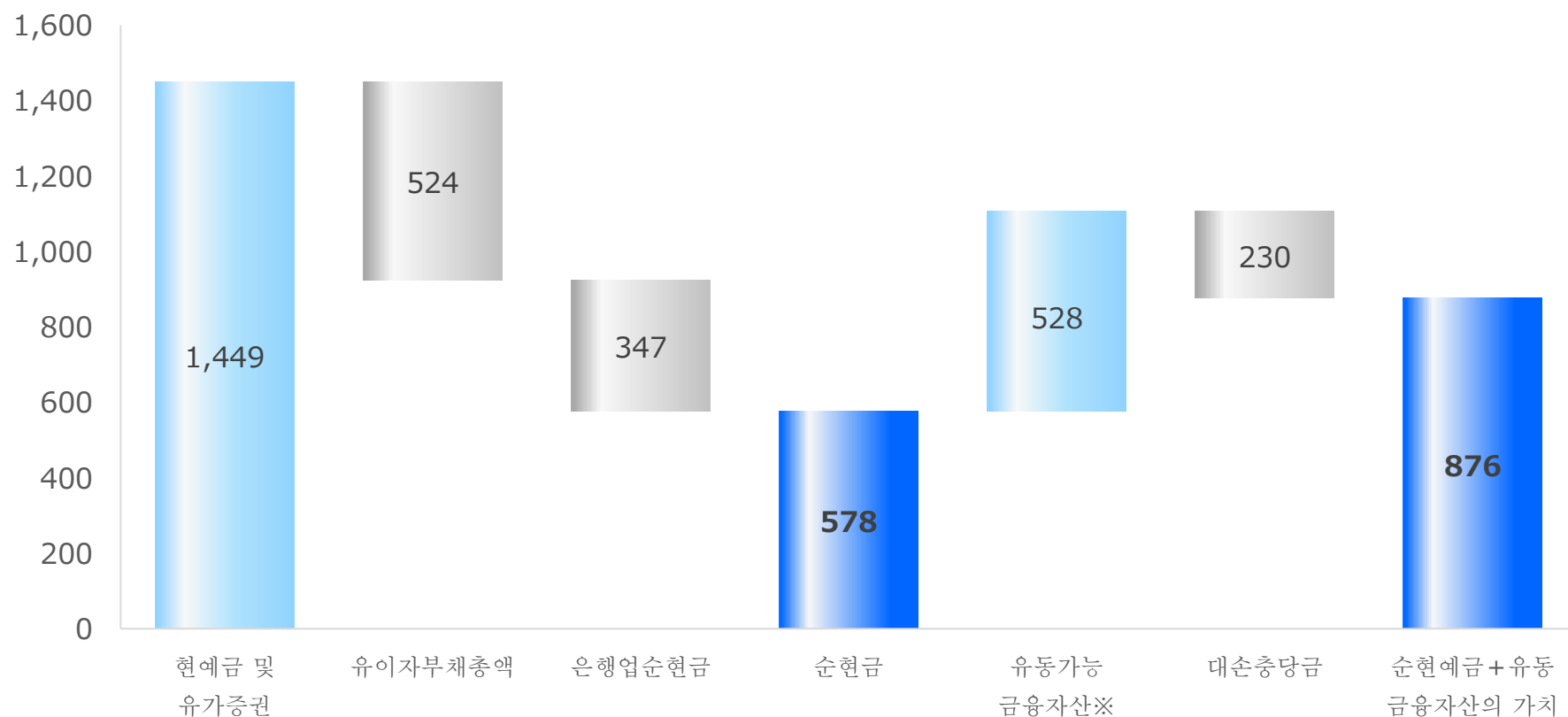
2016년 9월말



- 순현금 + 금융자산은 876억 엔
- 이 외에 투자유가증권의 미실현이익, 이익을 발생시키는 부외채권도 존재

순현금 + 금융자산 가치

단위 : 억 엔



※은행업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채권, 할부채권, 매입채권, 구상권

3. 부문별 실적

3-1. 일본금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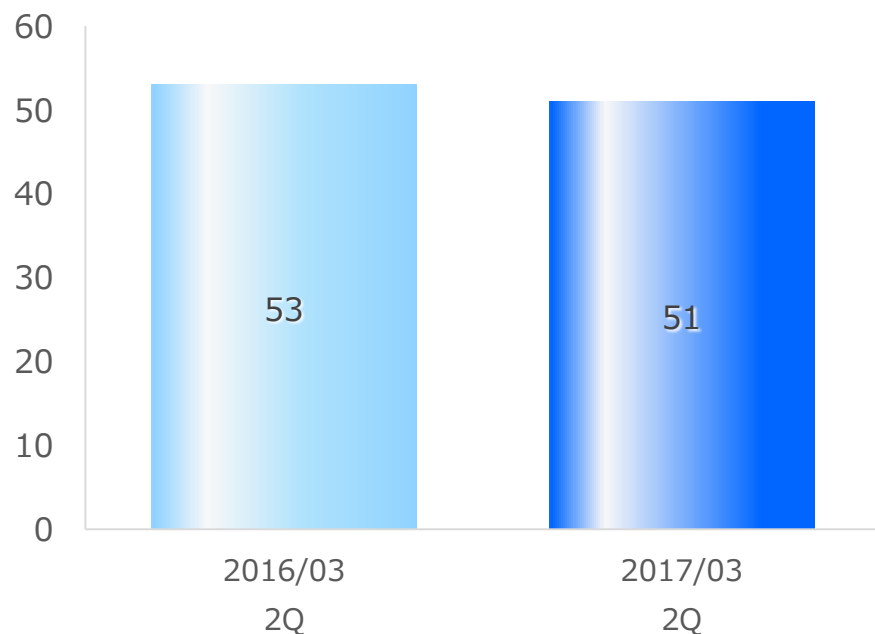
- ▶ 영업수익·영업이익 모두 안정적으로 추이
- ▶ 고정비 감축 효과로 인해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7억 엔 증가

J-GA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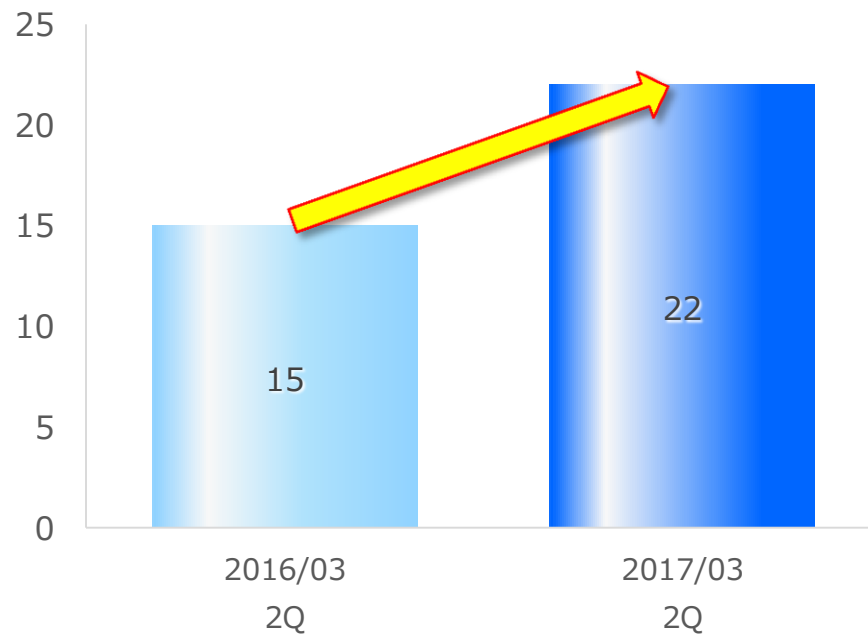
일본금융사업

단위 : 억 엔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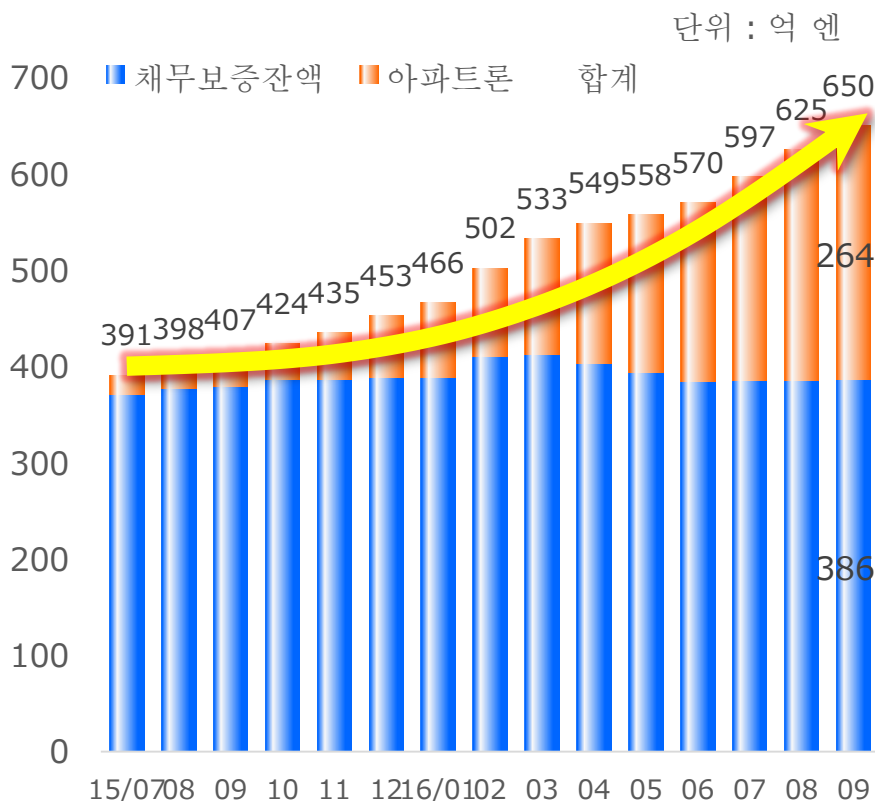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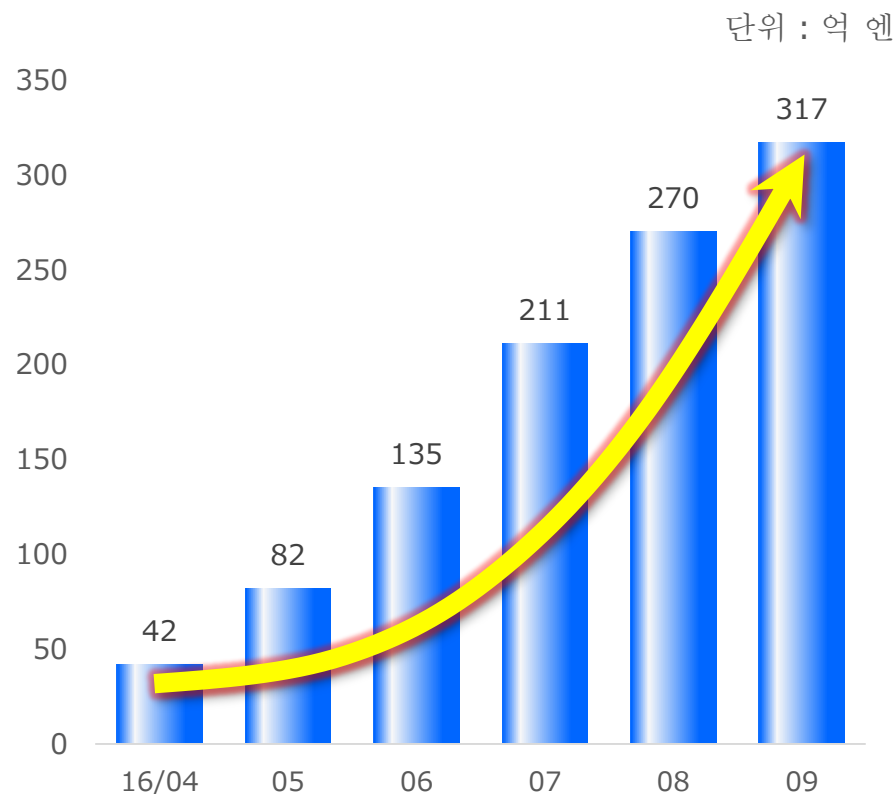


- ▶ 아파트론보증은 순조롭게 증가
- ▶ 본승인도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으며 온기계획달성을 향해 전진 중

일본보증의 보증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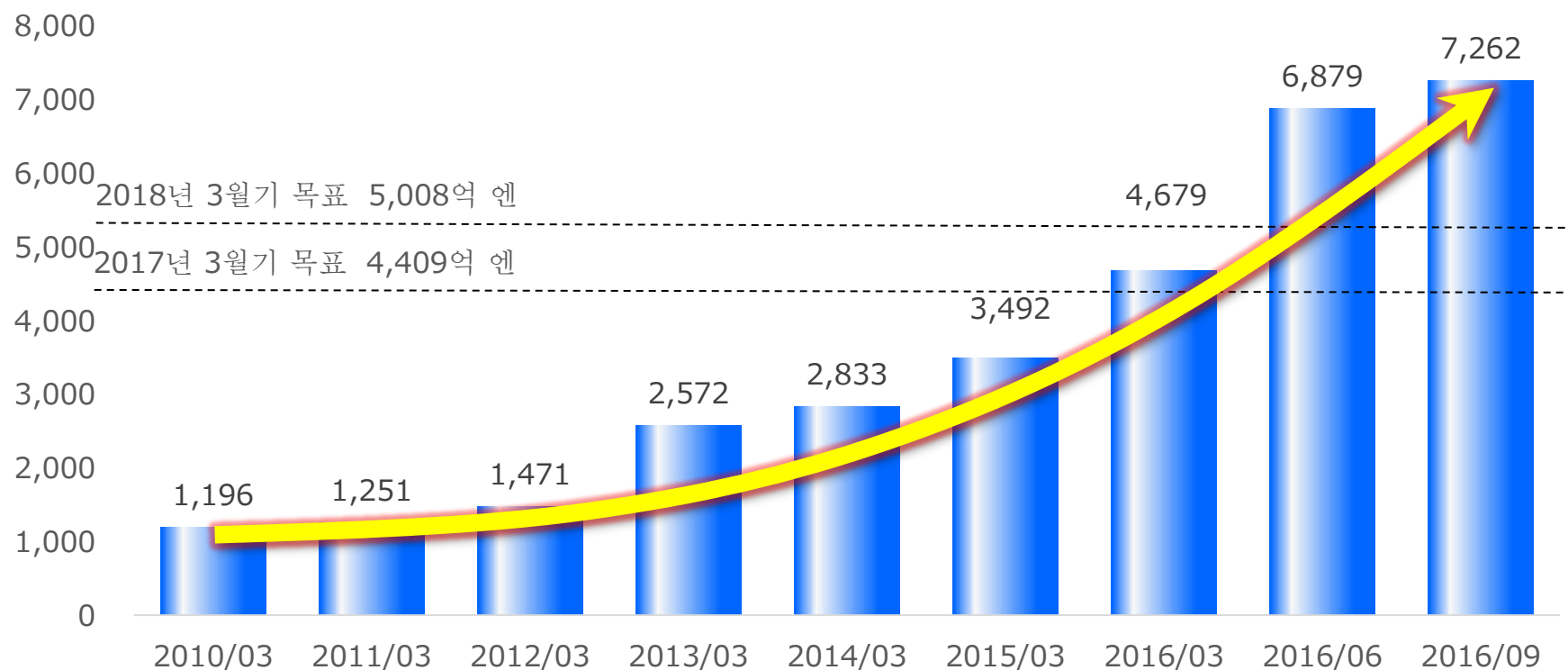
아파트론 본승인 누계금액



- NPL채권 매입이 계속해서 성과를 거두어 청구채권잔액은 대폭 증가
- 2017년 3월기 목표 4,409억 엔에 대하여 달성률 165%
(2018년 3월기 계획 5,008억 엔도 이미 달성)

청구채권잔액 추이

단위 : 억 엔



3 - 2. 한국금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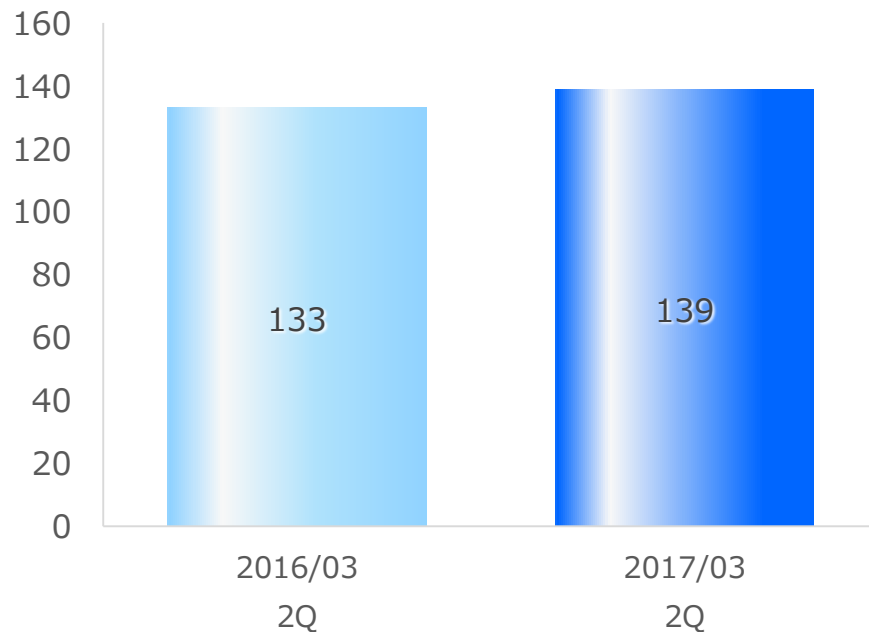
- ▶ 한국금융사업의 영업수익 및 영업이익은 잔액증대와 함께 순조롭게 추이
- ▶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9억 엔 증가

J-GA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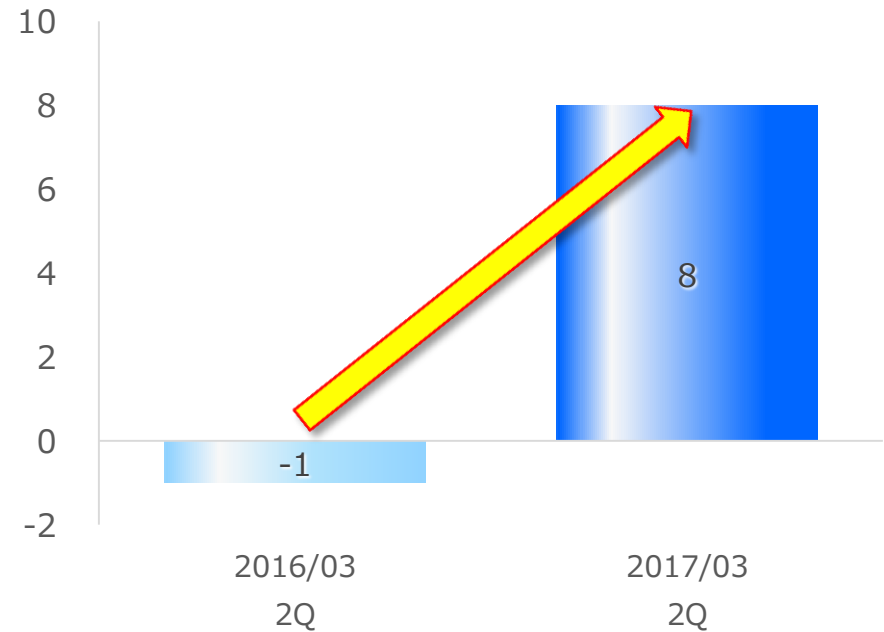
한국금융사업

단위 : 억 엔

영업수익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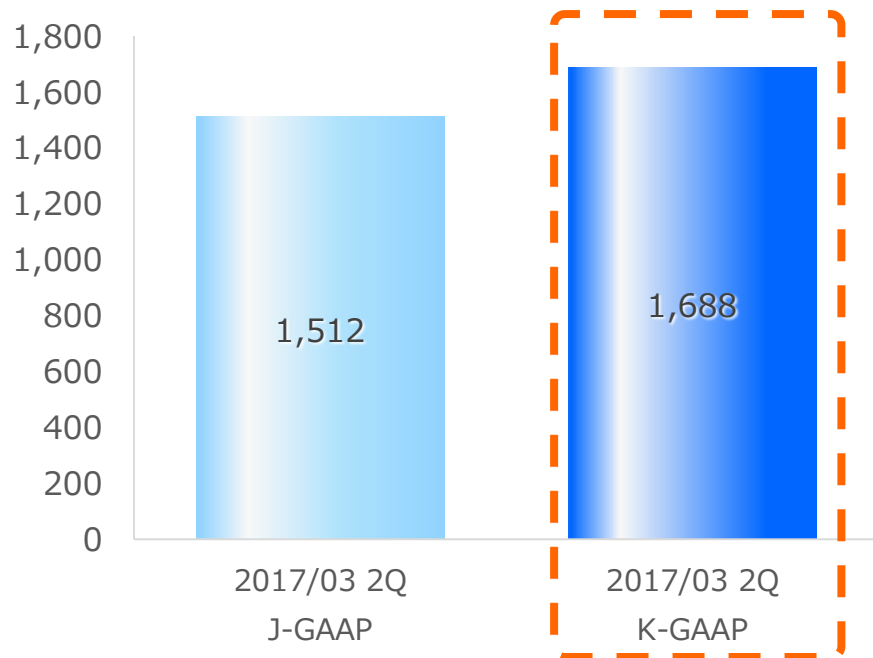


- ▶ 실력치를 나타내는 한국현지회계기준 K-GAAP으로는
영업이익 245억 원을 계상하는 수준으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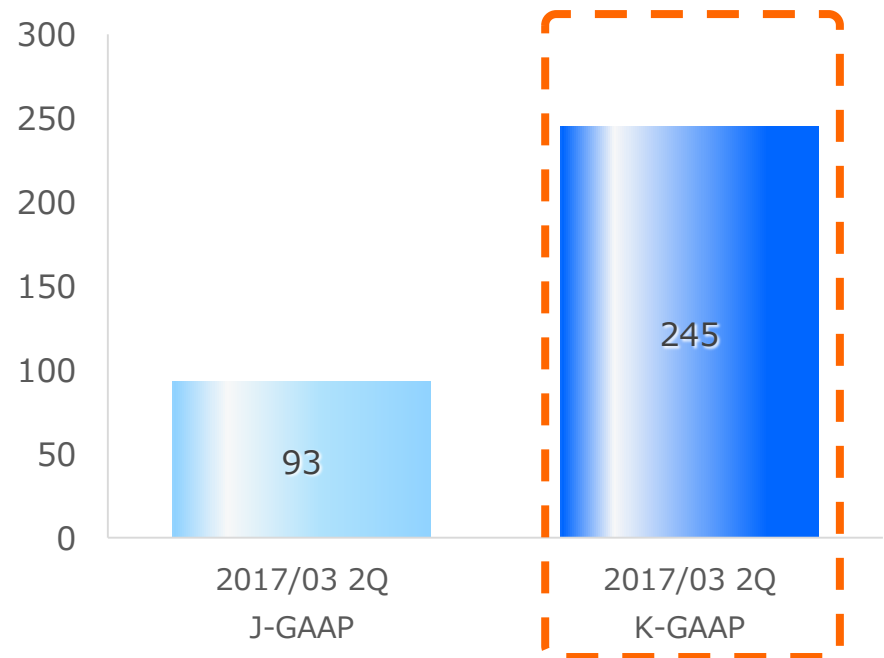
한국금융사업

단위 : 억 원

영업수익



영업이익



참고환율 : 1 원 = 0.0917 엔

※한국4사 = JT진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
JT캐피탈 TA자산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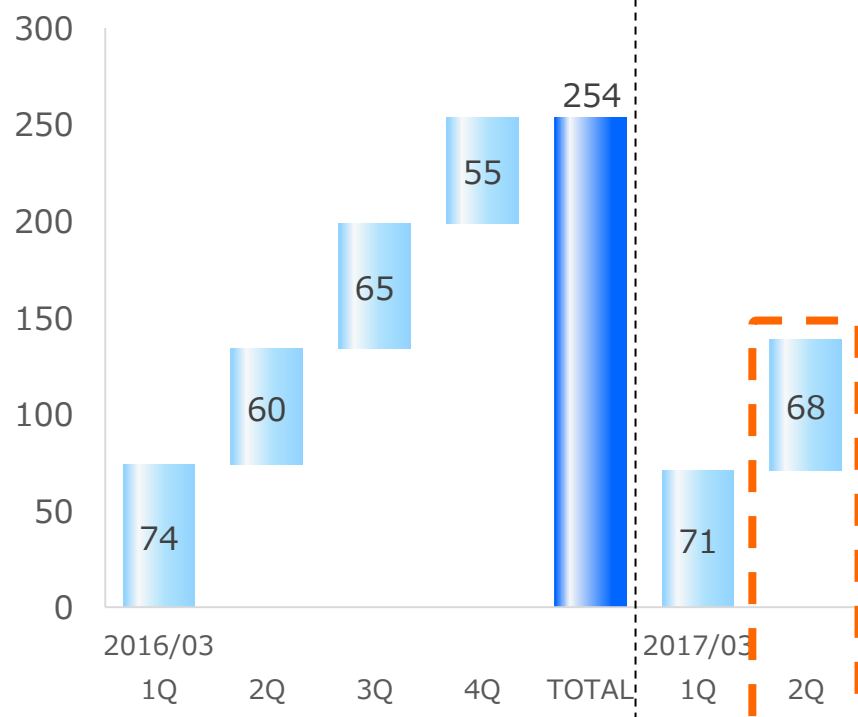
- ▶ 제2분기는 6억 엔의 영업이익을 계상
- ▶ 부의 영업권 소화부분이 이익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

J-GA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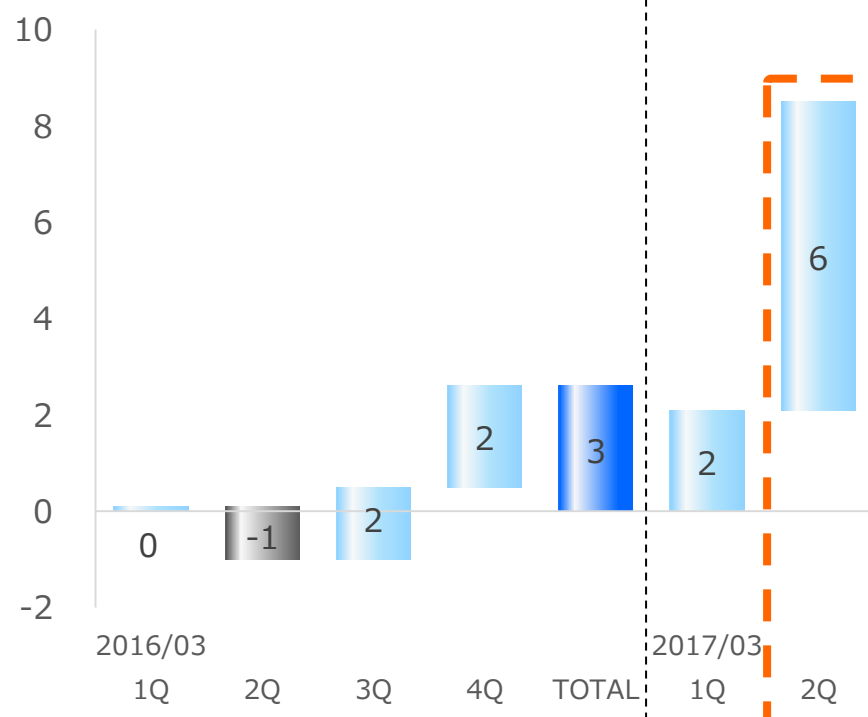
연결요약(분기별 영업수익·영업이익의 추이)

단위 : 억 엔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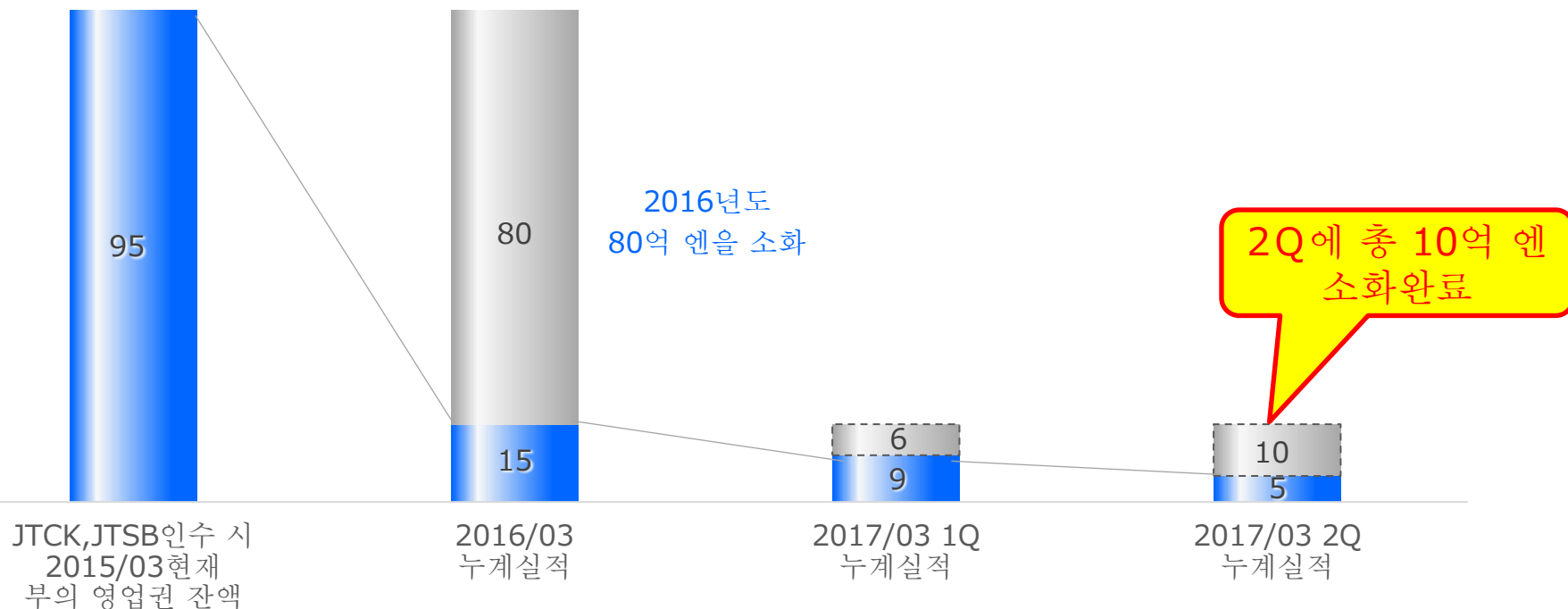
영업이익



- 2015년 3월기에 계상한 부의 영업권이 연결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침
- 2016년 9월 시점 미소화잔액은 약 5억 엔까지 감소(당기 중에 대부분 소화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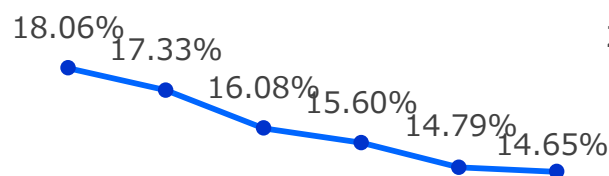
J-GAAP

부의 영업권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9월말 현재) 단위 : 억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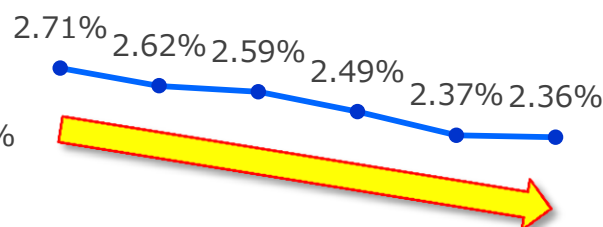


- ▶ 평균대출금리는 부동산담보대출 및 대기업대출 증가, 저금리상품 출시 등 신규 우량고객층 획득을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낮춤
- ▶ 예금금리는 순조롭게 저하
- ▶ 대출자산증가액이 늘어남에 따라 순이자마진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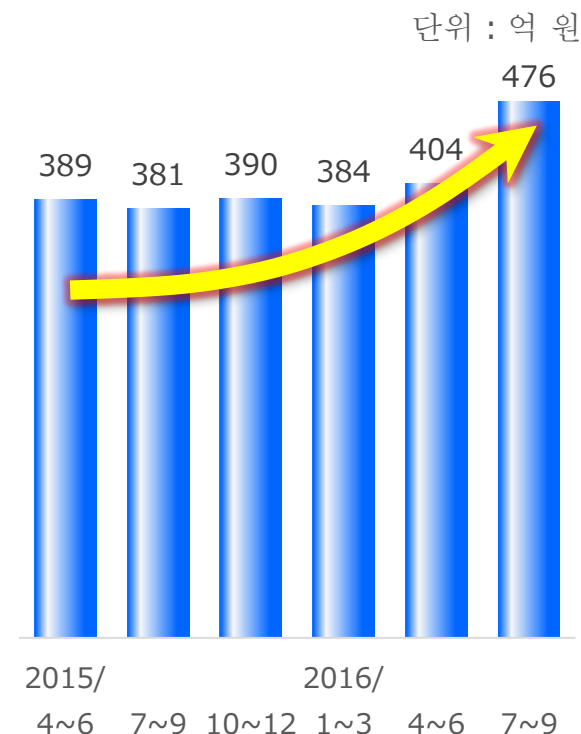
평균대출금리



평균예금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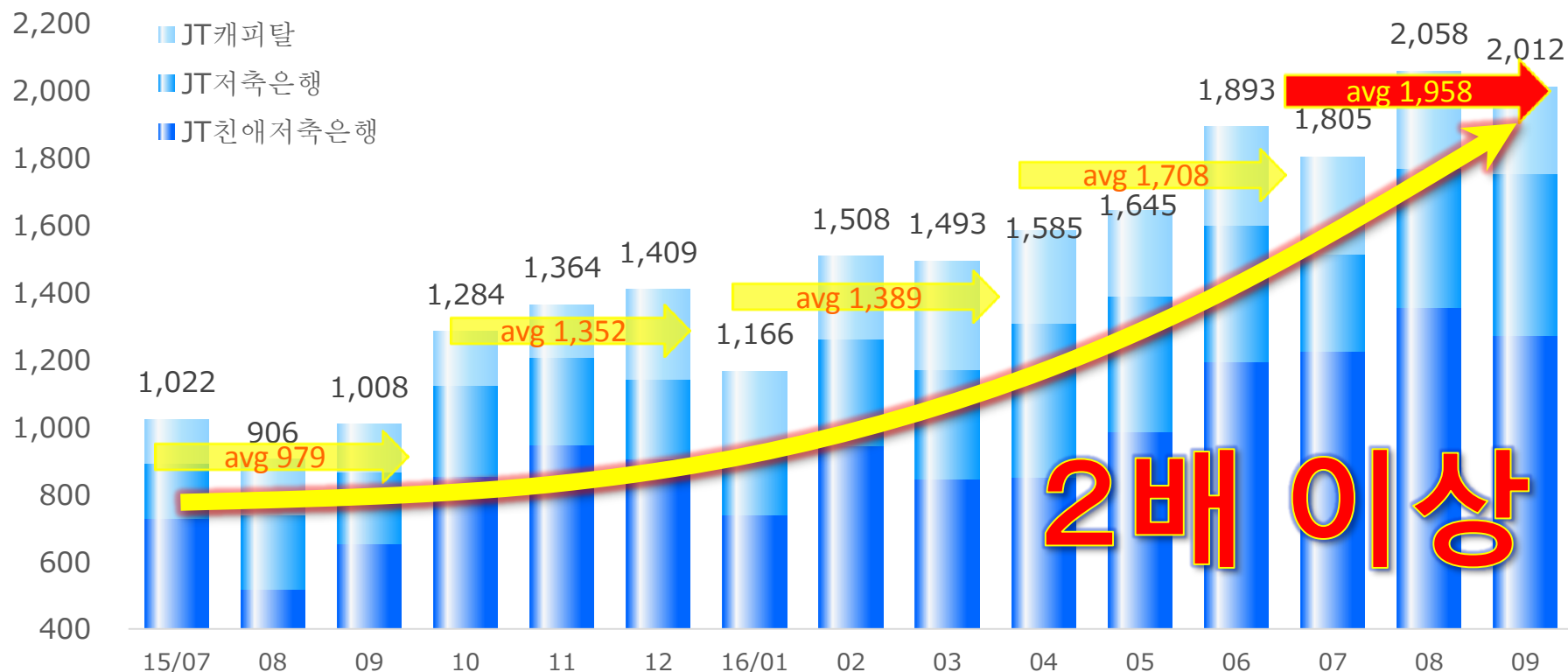
순이자마진



- ▶ 월간 신규대출금액은 사상최고액 경신 중(3개월 평균=1,958억 원)
- ▶ 1년 전 avg979억 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월간신규대출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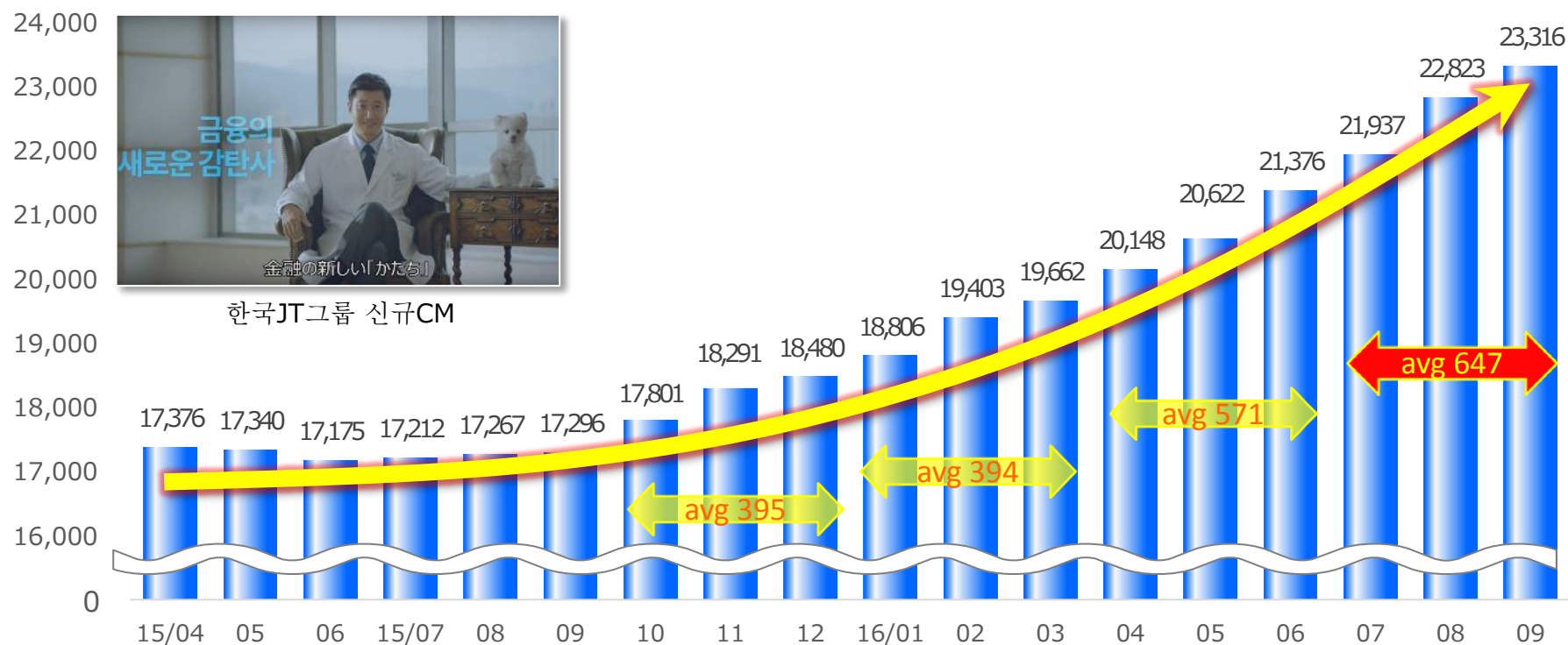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 마케팅전략이 효과를 거두어 당분기 월평균순증액은 약 647억 원

대출금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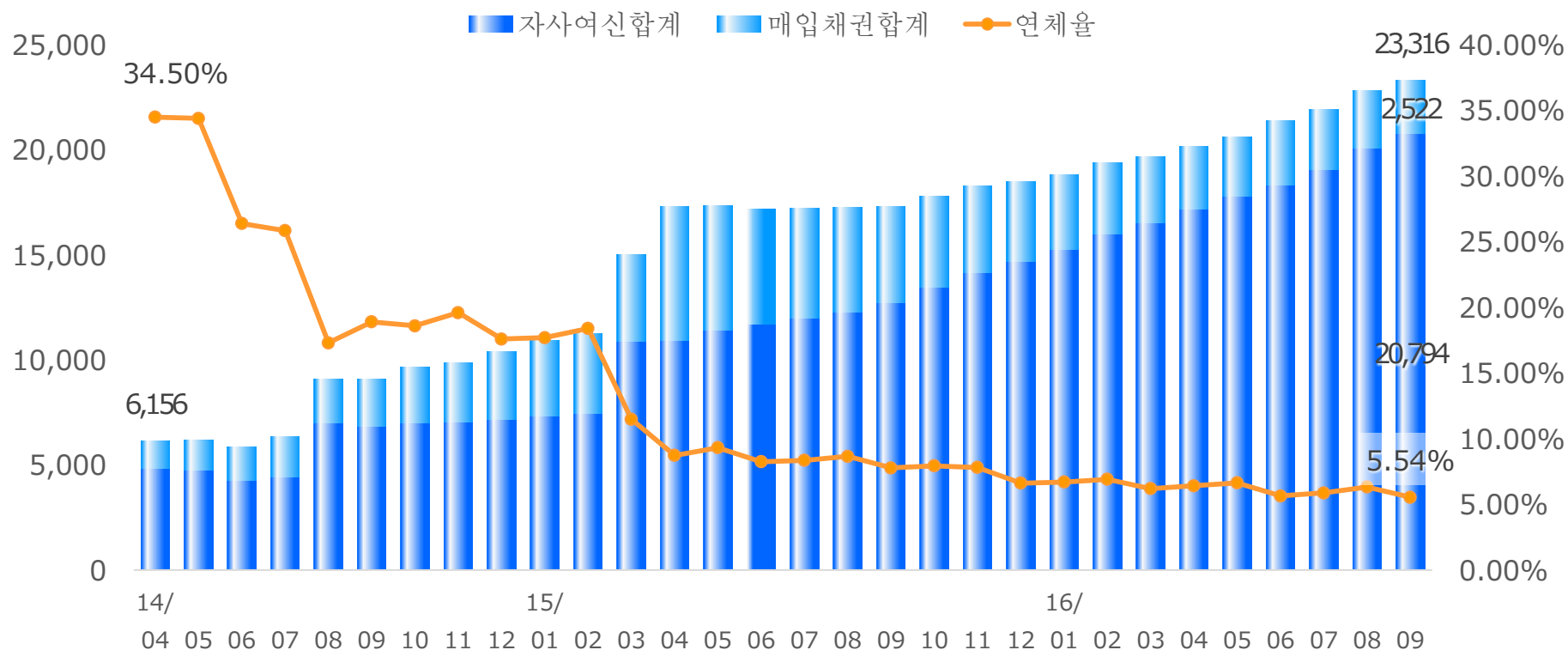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 ▶ 자사여신 우량채권이 더욱 증가
- ▶ 연체율은 낮은 수준으로 추이
- ▶ 수익기반은 더욱 탄탄해 진다

저축은행/캐피탈의 잔액 및 연체율 추이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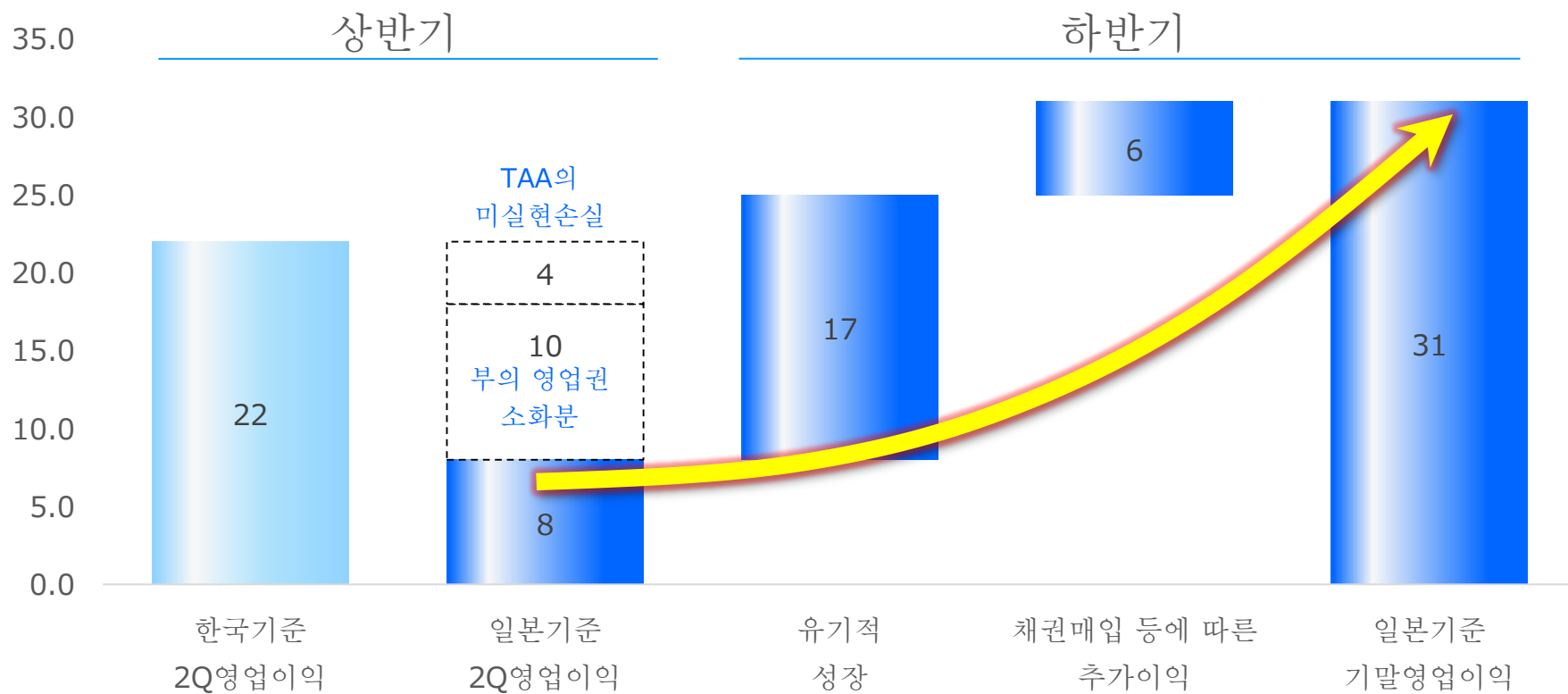
참고환율 : 1원 = 0.0917엔

※부실채권 = 30일 이상 연체채권

- 유기적 성장부분에 더하여 채권매입 및 DH저축은행 취득*에 따른 추가이익을 반영하여 온기영업이익 31억 엔을 예상

2Q부터 기말까지의 이익구조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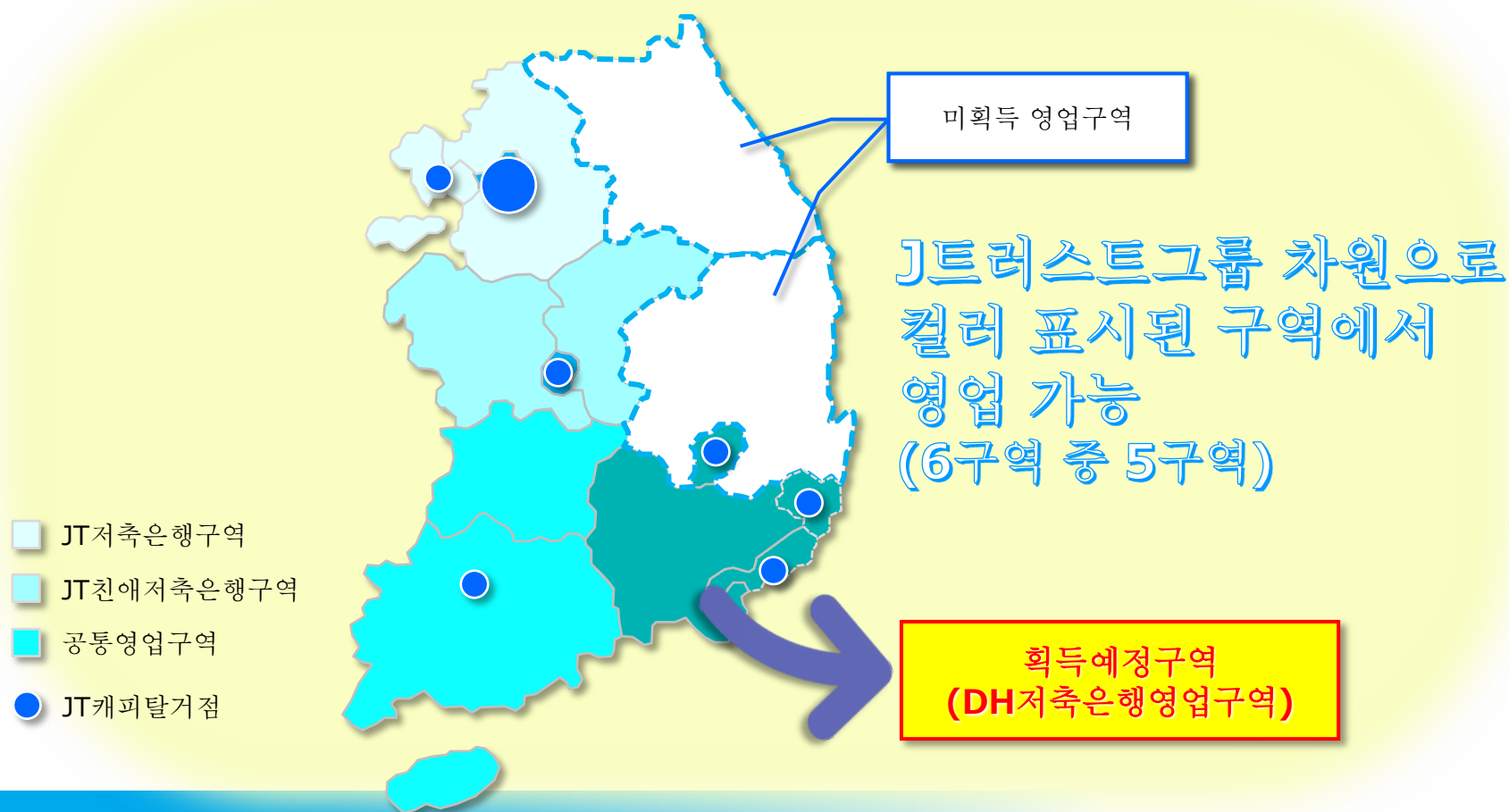
단위 : 억 엔



참고환율 : 1원 = 0.0917엔

※DH저축은행은 당국의 승인이 전제조건

- DH저축은행 인수로 인해 영업구역이 확대됨
- 한국 전역이 마케팅 대상이 됨



3 - 3. 동남아시아금융사업

- J-GAAP 상 동남아시아금융사업의 연결반영은 3개월의 차이가 있음
- 제2분기 46억 엔의 대손충당금전입액을 계상하여 영업손실은 54억 엔

■ 동남아시아금융사업 실적반영기간

2017년 3월기	1Q	2Q	3Q	4Q
J-GAAP	2016/1~3	2016/4~6	2016/7~9	2016/10~12
영업수익	35억 엔	33억 엔	—	—
영업이익	-6억 엔	-54억 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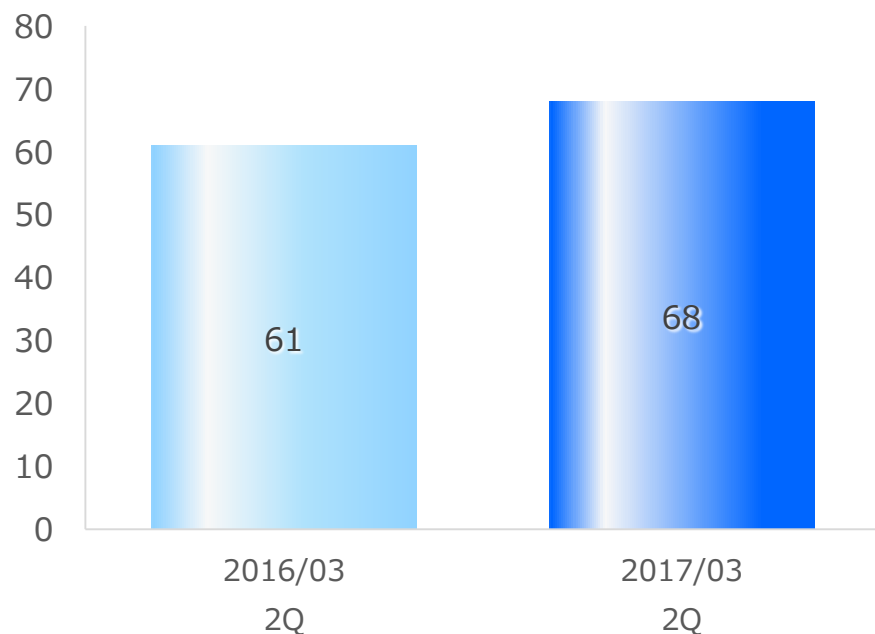
- ▶ 영업수익은 증가 기조, 실적전망은 하반기 편중형
- ▶ 베이스이익은 개선기조
- ▶ 경영 슬림화를 통한 근육질 조직을 만드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

J-GA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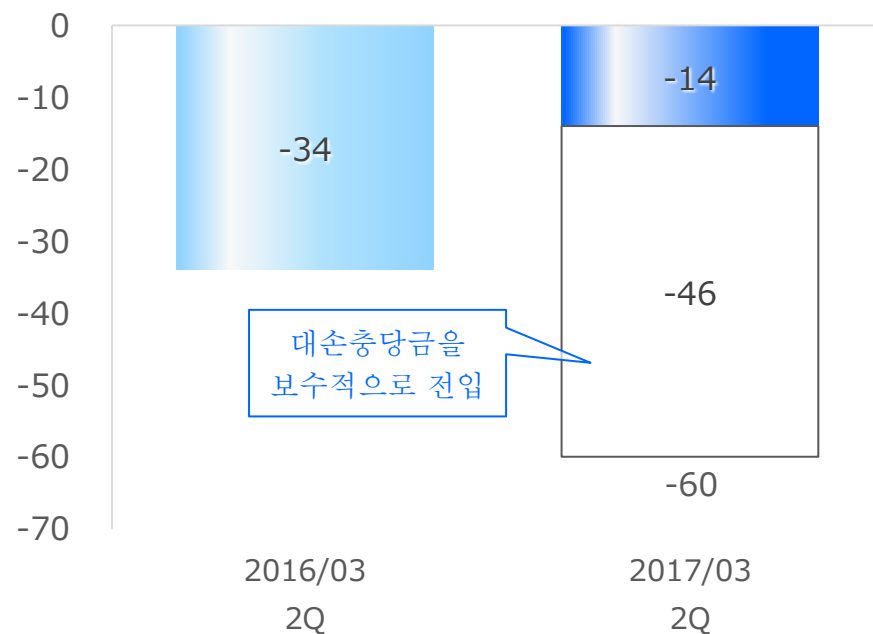
동남아시아금융사업

단위 : 억 엔

영업수익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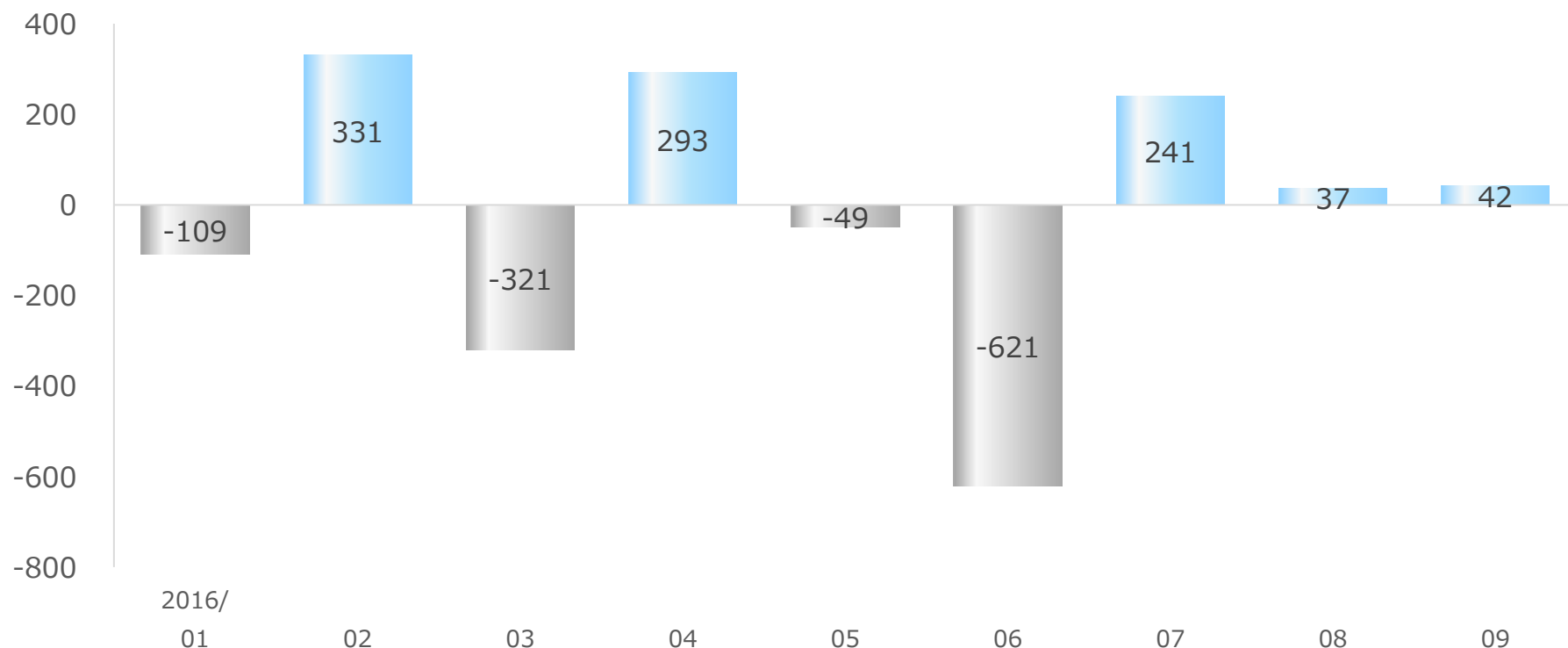


- ▶ 금년에 들어 단월흑자 계상 5회
- ▶ 적자월의 큰 요인은 대손충당금 전입
→ 금회 대손충당금 추가전입으로 경상적인 흑자화

현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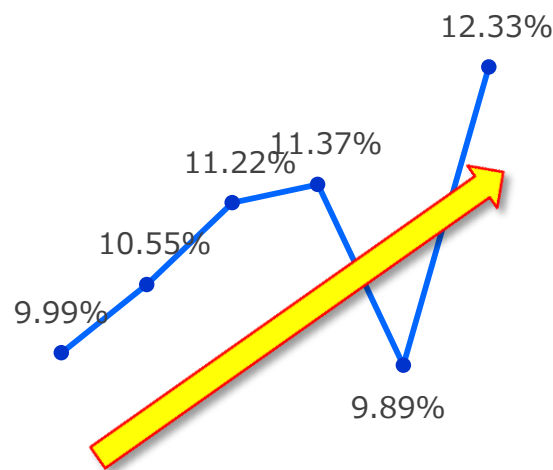
동남아시아금융사업 월별영업이익

단위 : 억 루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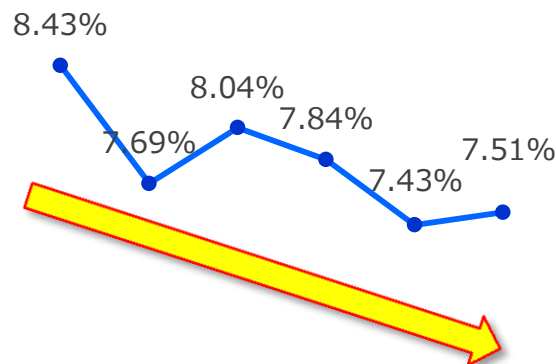
- ▶ 조건완화채권의 증가로 인해 평균대출금리가 저하하였으나 이는 NPL에 기인하는 것으로 정상채권 대출금리는 순조롭게 추이
- ▶ 평균예금금리는 순조롭게 저하

평균대출금리



2015/ 4~6 7~9 10~12 2016/ 1~3 4~6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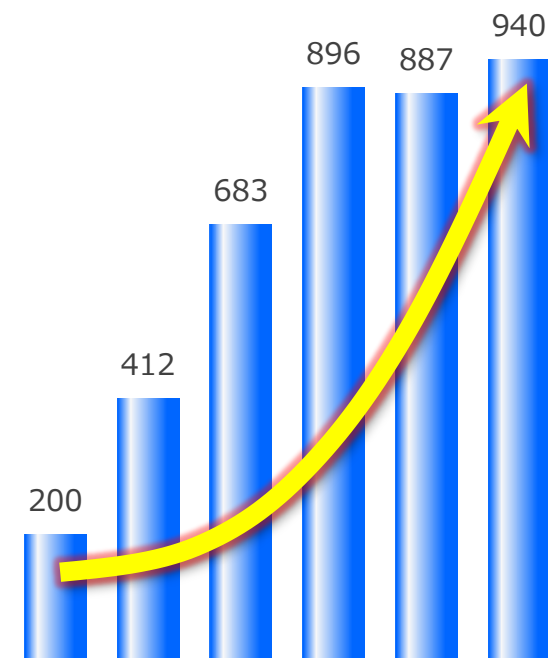
평균예금금리



2015/ 4~6 7~9 10~12 2016/ 1~3 4~6 7~9

순이자마진

단위 : 억 루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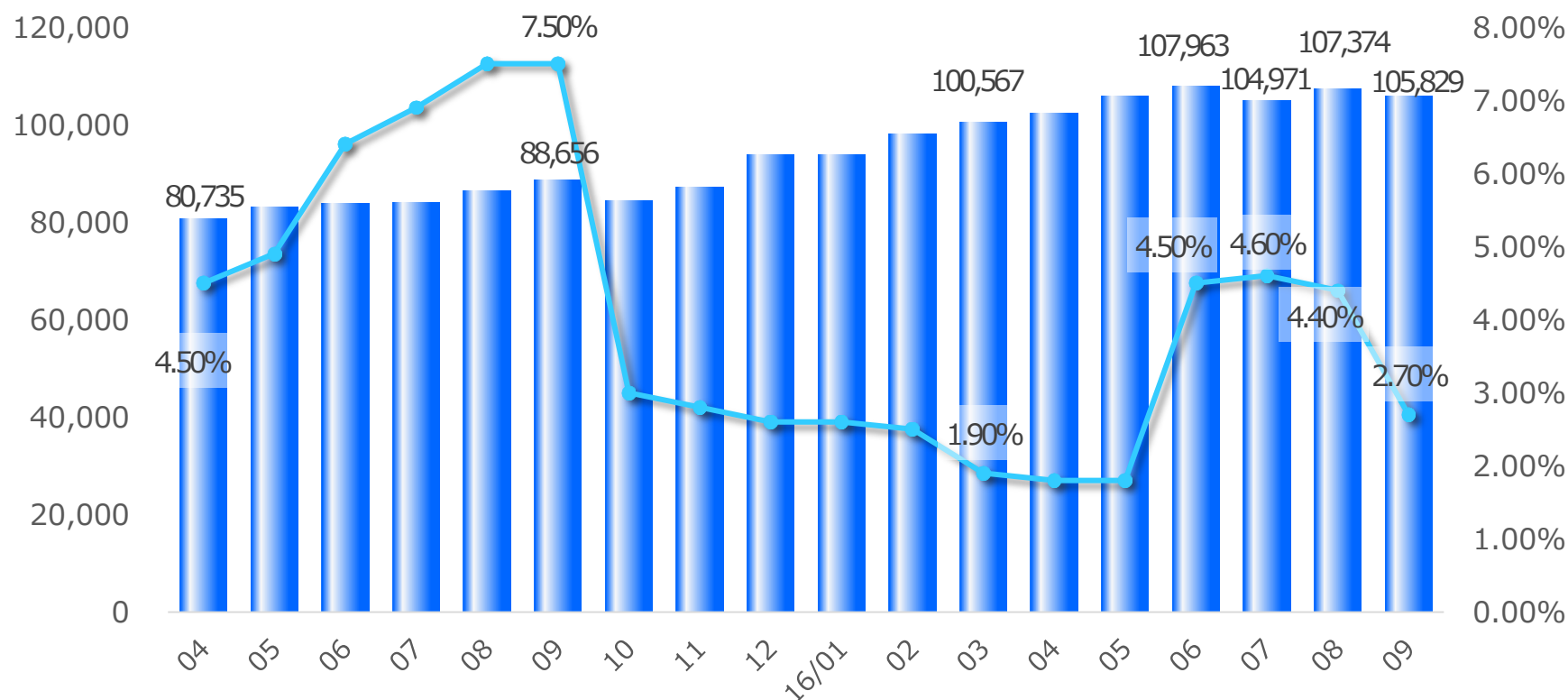
2015/ 4~6 7~9 10~12 2016/ 1~3 4~6 7~9

- 영업강화를 통한 영업자산 증대 실현
- 무티아라은행시절에 실행한 거액채권의 신용구분저하에 따라 부실채권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졌으나 9월말에 해소 완료

(6월말 4.50%→9월말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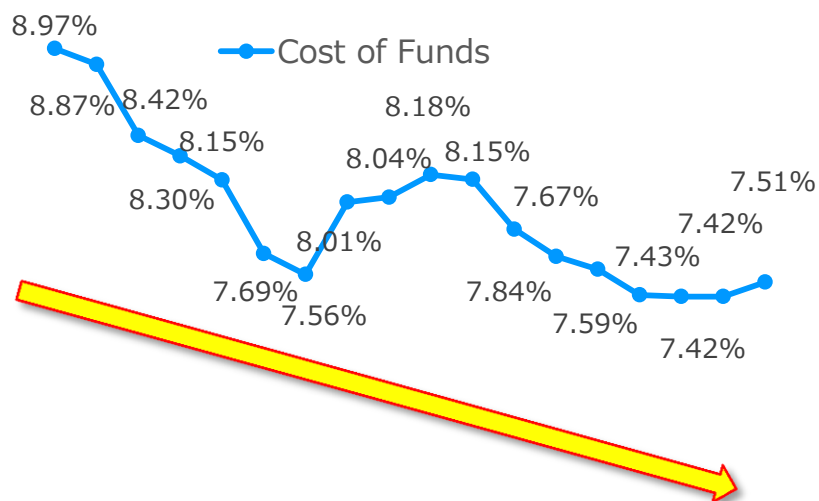
영업자산잔액 및 부실채권비율 추이

단위 : 억 루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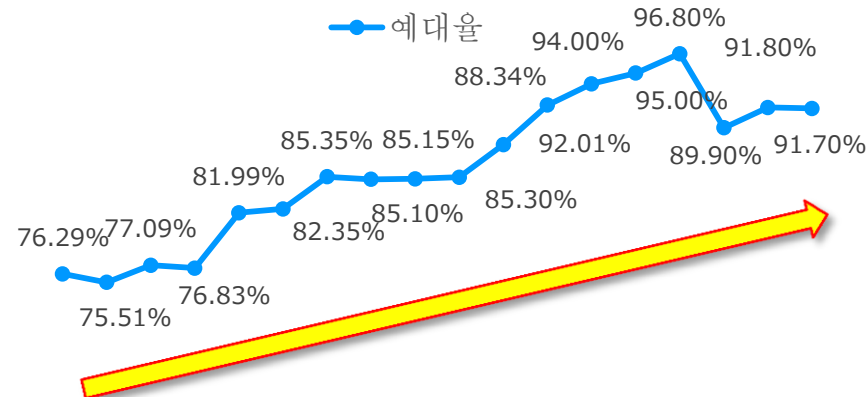


- COF(자금조달비용/Cost of Funds) 저하
- 대출잔액에 따른 예금량 컨트롤을 통해 예대율이 상승함 (베이스라인비용 삭감)

COF(Cost of Funds) 및 예대율 추이



15/ 04 05 06 07 08 09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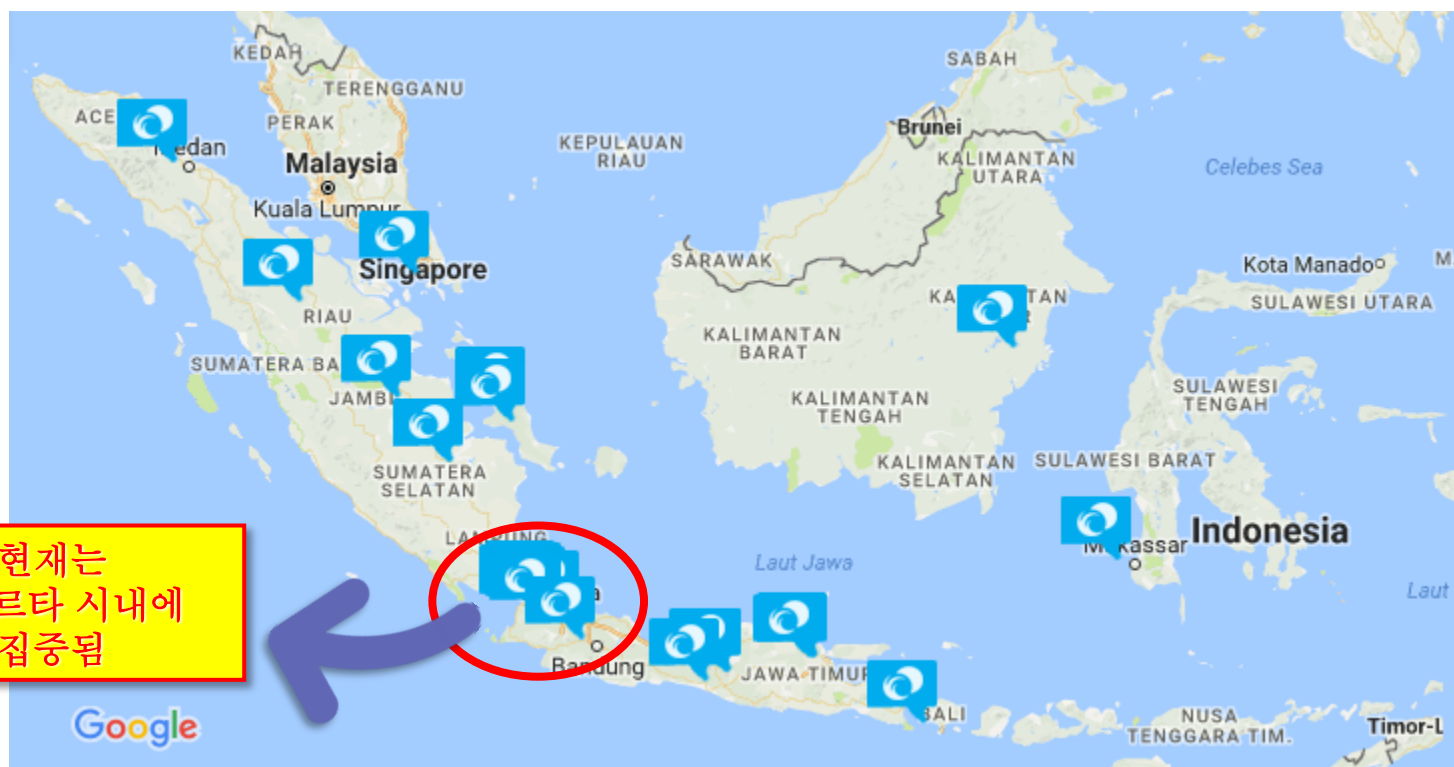


15/ 04 05 06 07 08 09 1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 18거점을 폐지하고 58점포→40점포로 감축할 예정(폐지대상의 반수이상은 자카르타 시내)
- 사원을 전체의 약 50%로 감축하고 700명으로 맞출 예정(월간 88백만 엔의 고정비 감축이 예상됨)

J트러스트은행 거점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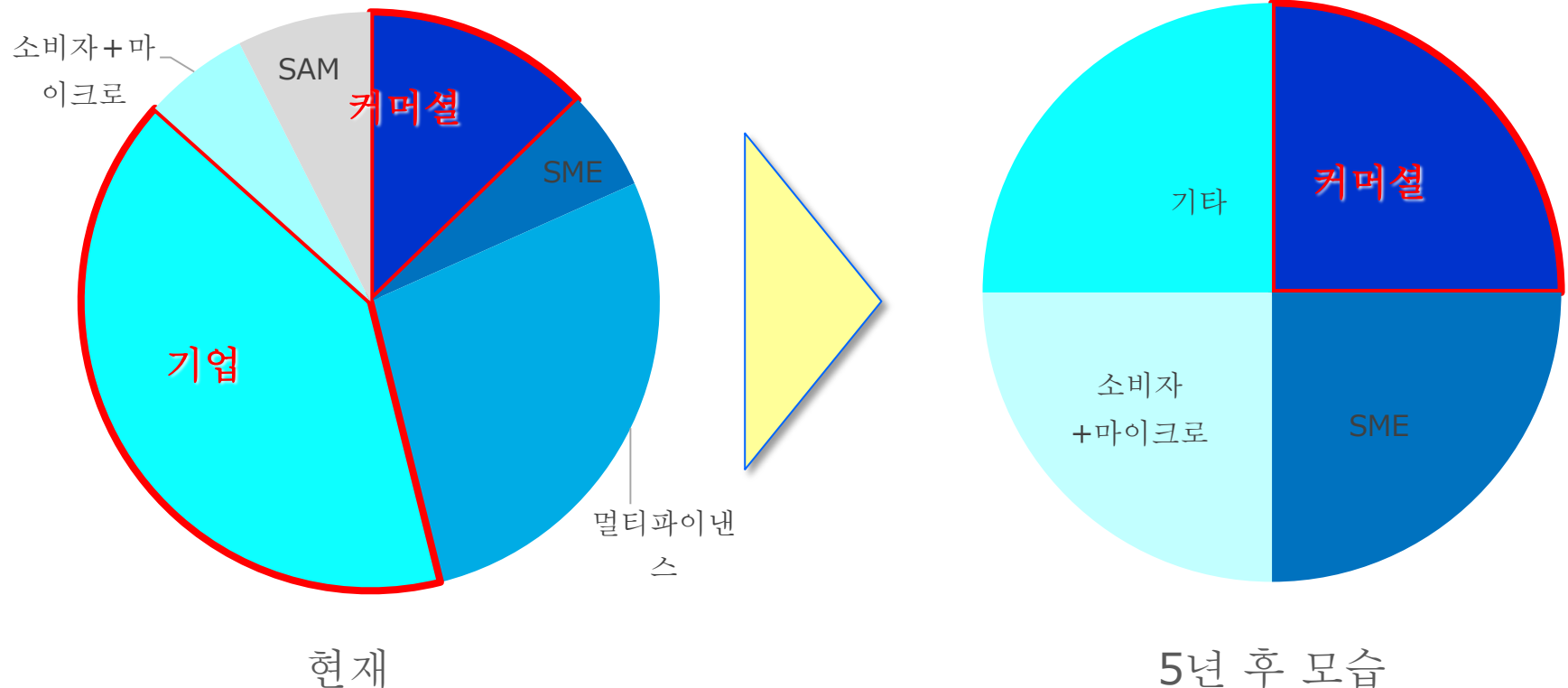
2016년 11월 현재



현재는
자카르타 시내에
집중됨

- ▶ 잔액10억 엔 이상의 거액대출(기업대출) 압축
- ▶ 1억 엔~5억 엔 소액대출(커머셜론) 추진

향후 채권포트폴리오 이미지



- 일본보증, 파르티르를 통해 회수·내부통제에 정통한 일본인 사원 2명을 추가 파견
- J트러스트임원이 매월 임점하여 업무체크를 실시

	항목	내용
영업/ 마케팅 강화	대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GLFI를 통한 소액대출 강화 •10억 엔을 초과하는 기업대출 압축 •1억 엔~5억 엔의 커머셜대출 추진
	예금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 대상 보통예금 판매 •당좌·보통예금 합산 프로그램상품 판매 •사업자 대상 당좌예금 판매
	보험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네시아 대형보험회사(시나르마스 보험)와 제휴 •보험상품 창구판매 준비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즈니스센터화 추진, 대출취급은 비즈니스센터에 집약 ①커머셜·비즈니스센터...현재 9개소이며 연내에 13개소로 ②리테일/SME·비즈니스센터...5개소
	신용카드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브랜드카드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Debit카드를 발행할 계획

- J트러스트은행과 J트러스트인베스트먼츠 인도네시아(JTII)2사 간에 회수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JTII의 회수력을 은행에서도 활용

	항목	내용
심사/ 회수	EWMS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신리스크 조기발견·정확도 향상을 위해 EWMS 도입 (※Early Warning Monitoring System→조기경계모니터링시스템) •부문장을 헤드헌팅, 주1회 대출 모니터링 실시
	심사프로세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신업무 효율화 •여신프로세스의 근본적 개선 •비즈니스측면, 심사측면 등 양면으로 심사, 각 측면의 심사내용을 신용과일에 기재
	업무위탁 J트러스트인베스트먼츠 인도네시아(JT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NPL억제, 회수UP을 도모하기 위해 J트러스트은행과 JTII회수부문의 연계를 강화 •JTII에 일본보증에서 회수전문가를 파견
	업무위탁(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보부동산 조기매각, 대상물건, 매각업자 리스트업

3 - 4. 투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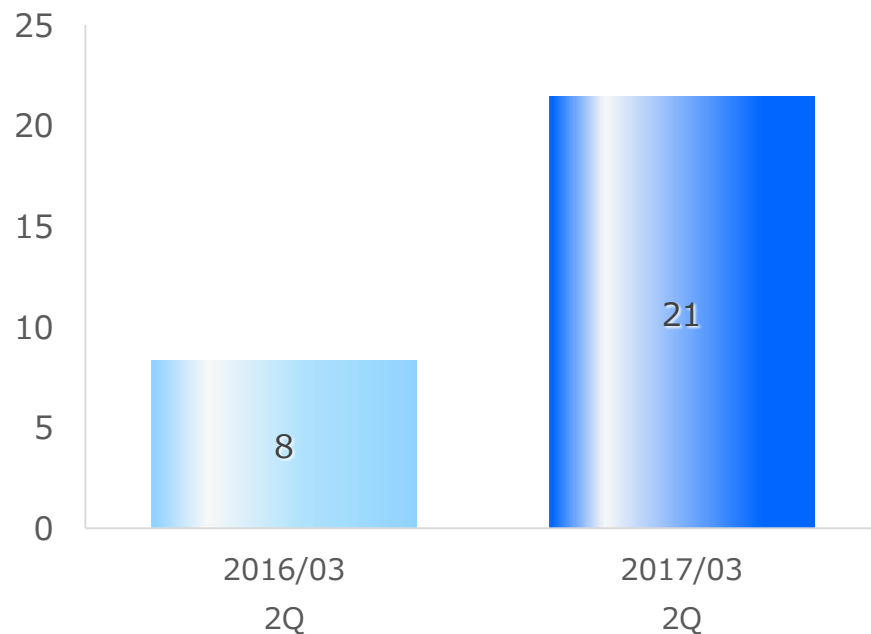
➤ 그룹리스사 전환사채 시가평가 손실14억 엔을 계상

J-GA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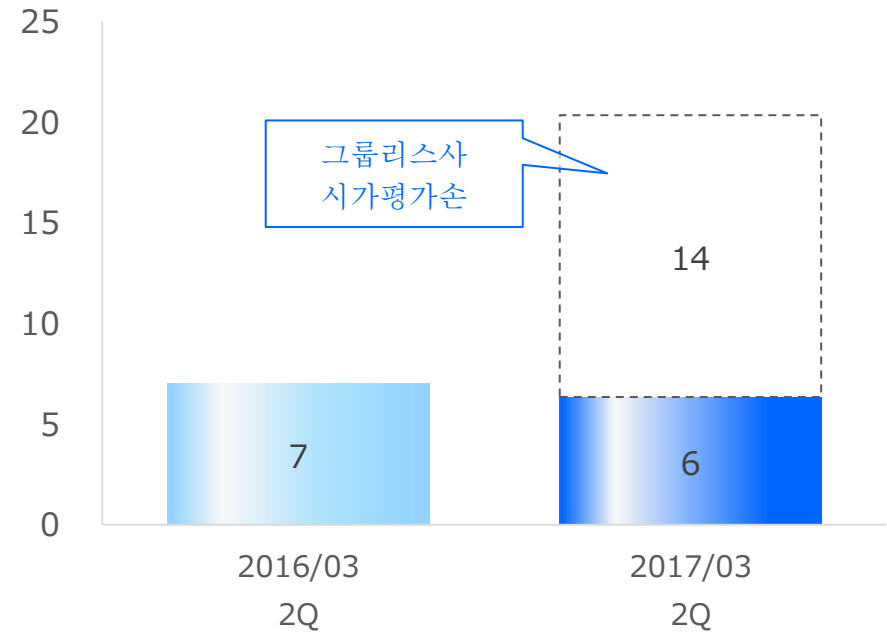
투자사업

단위 : 억 엔

영업수익



영업이익



- J트러스트아시아에서는 IFRS를 적용
- IFRS회계규정에 따르면 전환사채에 포함된 파생상품부분은 결산기마다 공정가치평가를 하여 손익에 계상해야 한다

파생상품회계란?

그룹리스사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인수 시의 주가인 41.8바트를
기점으로 하여 결산시점의 주가에
따른 평가액을 손익 계상하는 구조



평가손익 시뮬레이션

	그룹리스 주가	평가손익
↑	60.0바트	+45억 엔
	50.0바트	+20억 엔
	10월 31일 46.0바트	+10억 엔
인수 시	41.8바트	0억 엔
9월 30일	35.0바트	-14억 엔
↓	30.0바트	-26억 엔
	20.0바트	-45억 엔

+24억 엔

- 9월 30일 현재 GL주가 35.0타이바트 평가손14억 엔으로 인해 손실 계상
 - 10월 31일 현재 GL주가 46.0타이바트 평가익10억 엔으로 인수 시 주가를 상회
- (추정치)

단위 : 타이바트



- DBS VICKERS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그룹리스사의 목표주가 : 12개월 50바트(22%upside)
- 주가 50바트인 경우 파생상품 평가익은 추정 20억 엔(환율 : 1바트=2.94엔)

Thailand
Flash Note

DBS Group Research . Equity

Group Lease (GL TB) : **BUY**

Mkt. Cap: US\$1,809m | 3m Avg. Daily Val: US\$6.5m

Last Traded Price : Bt41.00

Price Target 12-mth: Bt50.00 (22% upside)

Analyst
Thaninee SATIRAREUNGCHAI, CFA +662 657 7837; thaninees@th.dbsvickers.com

Group Lease (GL TB) : **BU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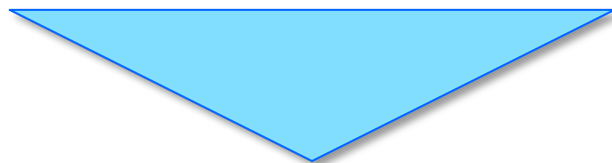
Mkt. Cap: US\$1,809m | 3m Avg. Daily Val: US\$6.5m

Last Traded Price : Bt41.00

Price Target 12-mth: Bt50.00 (22% upside)

highlights the relevant data points, which are actively tracked

- 2015년 12월 30일 GL사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 전환주식수 : 98.1백만 주 1주 = 18바트(53억 49백만 엔)
 - 2016년 9월 30일주가 1주 = 35바트(99억 96백만 엔)



단순차액 : 약 46억 엔 → 「미실현이익」

3 - 5. 비금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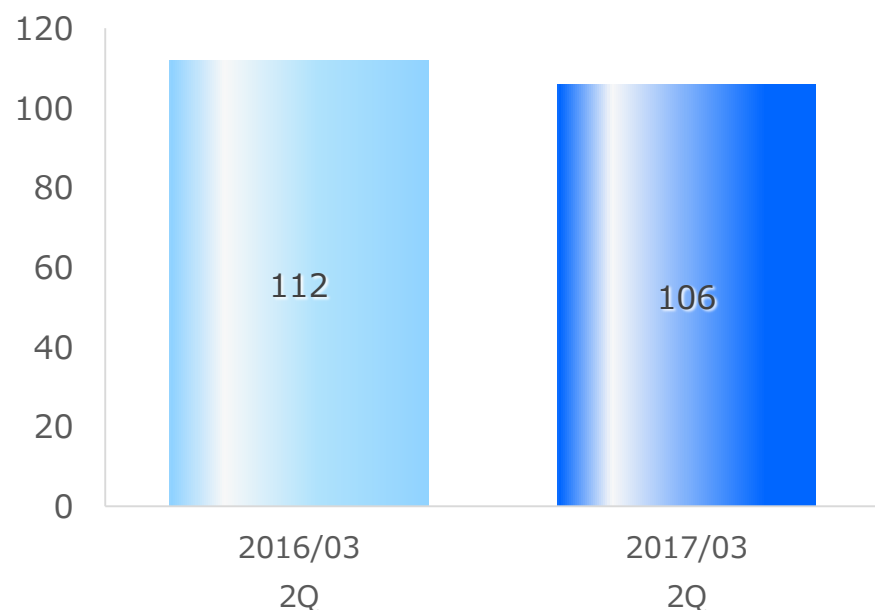
- ▶ 어도어즈그룹의 연결영업이익은 5억 엔으로 순조로움
- ▶ 하이라이즈 엔터테인먼트에서 상반기에 개발비용 등 5억 엔을 계상하였으나 부문이익 확보
- ▶ 하반기에는 상품출시에 따른 매출 계상을 통한 수익 공헌이 예상됨

J-GA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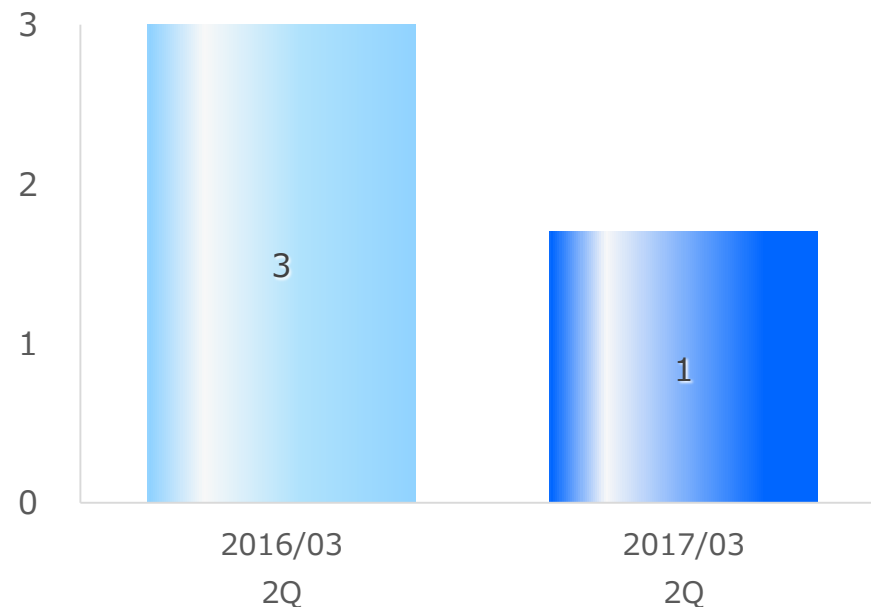
비금융사업

단위 : 억 엔

영업수익



영업이익



4. 영업이익 하반기 전망

- ▶ 하반기 영업이익 **81억** 엔을 계상하여 수정 후 연결영업이익목표 **42억** 엔 달성을 위해 전진

영업이익 하반기 전망(부문별영업이익)

단위 : 억 엔

	실적예상 (금회발표)	상반기 합계	하반기 예상
일본금융사업	42	22	20
한국금융사업	31	8	23
동남아시아금융사업	-65	-60	-5
투자사업	55	6	49
비금융사업	5	1	4
본사비용/기타	-26	-16	-10
연결영업이익	42	-39	81

5. 향후 성장을 위한 노력

대표이사 사장
후지사와 노부요시

- 한국금융사업 : 부의 영업권 영향 15억 엔/미실현손실 5억 엔 총20억 엔
- 동남아시아금융사업 : 대손충당금 전입 46억 엔/특별손실 15억 엔

당초 온기실적예상과 금회수정 예상과의 차이(부문별영업이익)

단위 : 억 엔

영업이익	실적예상(전회)	실적예상(금회)	차이
일본금융사업	39	42	3
한국금융사업	51	31	-20
동남아시아금융사업	3	-65	-68
투자사업	30	55	25
비금융사업	13	5	-8
본사비용/기타	-23	-26	-3
연결영업이익	112	42	-70

- 9월 30일 현재 GL주가 35.0타이바트 평가손14억 엔으로 손실 계상
- 10월 31일 현재 GL주가 46.0타이바트 평가익10억 엔으로 인수 시 가격을 상회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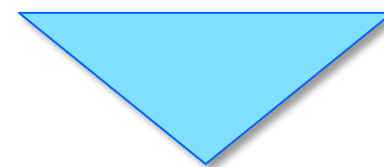
단위 : 타이바트

GL社주가 추이



➤ 2015년 12월 30일 GL사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 전환주식수 : 98.1백만 주
1주 = 18바트(53억 49백만 엔)
- 2016년 9월 30일주가
1주 = 35바트(99억 96백만 엔)



단순차액 : 약 46억 엔→

「평가익」

향후 사업전개

- 도시지역보다 지방을 의식한 POS 전개
- GL사는 캄보디아에서 2년 만에 잔액100억 엔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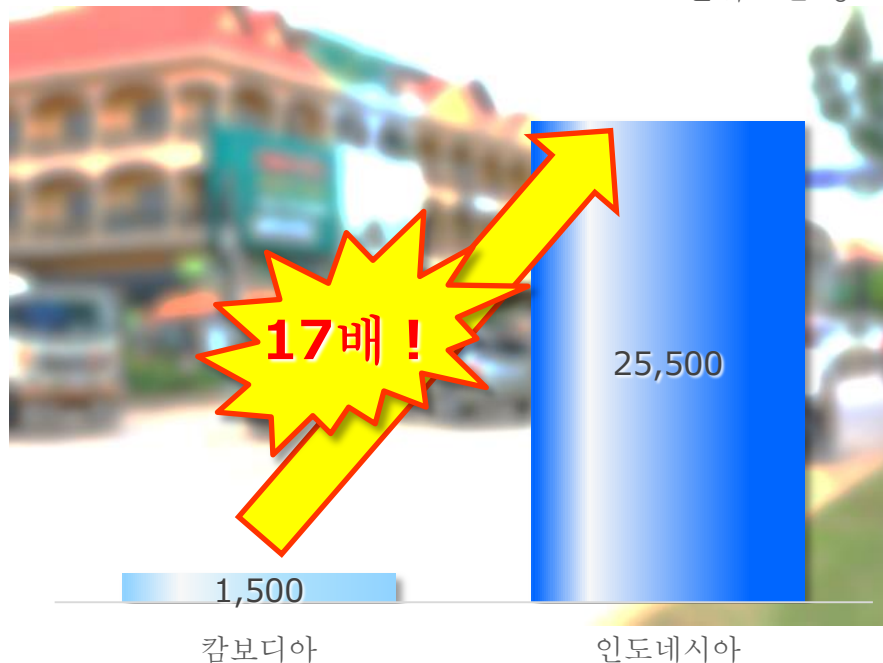
GL사의 캄보디아지역 성공례를 기초로 한 향후 이익이미지

	2018년	2019년	2020년
GLFI을 통한 BJI 대출잔액	1,000억 엔	2,000억 엔	4,000억 엔
상기로 얻는 BJI의 이익(4%인 경우) ①	40억 엔	80억 엔	160억 엔
GLFI 이익수준	200억 엔	400억 엔	800억 엔
GLFI 이익 중 향유이익(20%)②	40억 엔	80억 엔	160억 엔
① + ② = GL과의 협업으로 인한 이익	80억 엔	160억 엔	320억 엔

- 그룹리스사는 인구1,500만 명 시장인 캄보디아에서 2년 만에 잔액100억 엔을 달성
- 인도네시아 인구는 캄보디아의 약 17배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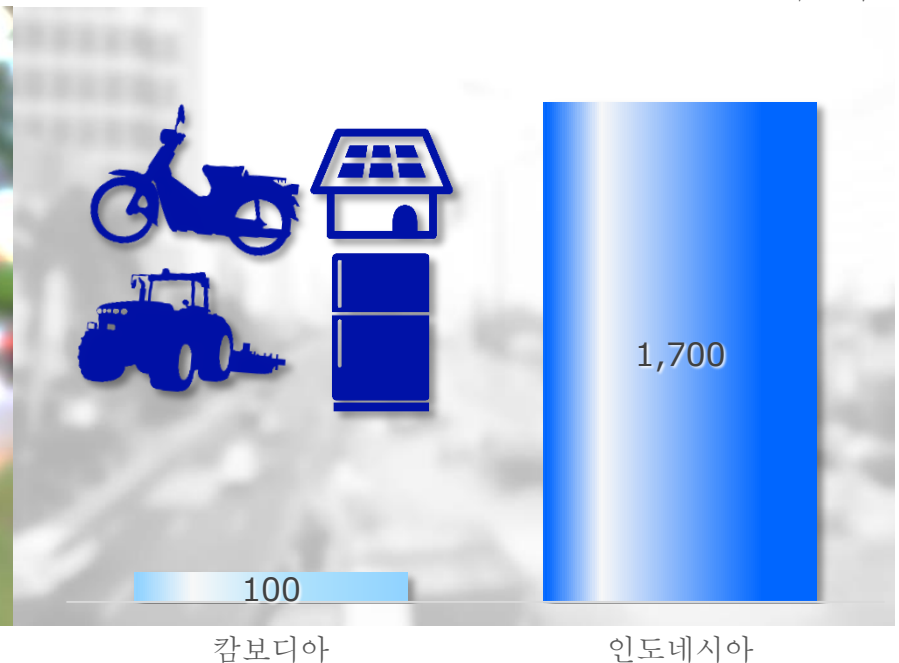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인구

단위 : 만 명



인구비율을 고려한 인도네시아 잔액 이미지

단위 : 억 엔



- 신용정보센터가 없는 나라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및 할부파이낸스 부문의 여신컨트롤 가능 노하우를 보유하는 곳은 그룹리스사가 유일
- 그룹리스사는 라오스 점유율 1위이며 미얀마, 스리랑카에도 진출

순위	국가명	인구
1	인도네시아	255,462,000
2	필리핀	102,965,000
3	베트남	91,812,000
4	태국	68,387,000
5	미얀마	52,187,000
6	말레이시아	30,568,000
7	캄보디아	15,040,000
8	라오스	6,802,000
9	싱가포르	5,541,000
10	브루나이	421,000



향후 사업전개

- 그룹리스사에 대하여 은행으로서 각국에서 파이낸스를 실시
- 일본의 지역은행과의 자본 제휴, 업무 제휴



POS점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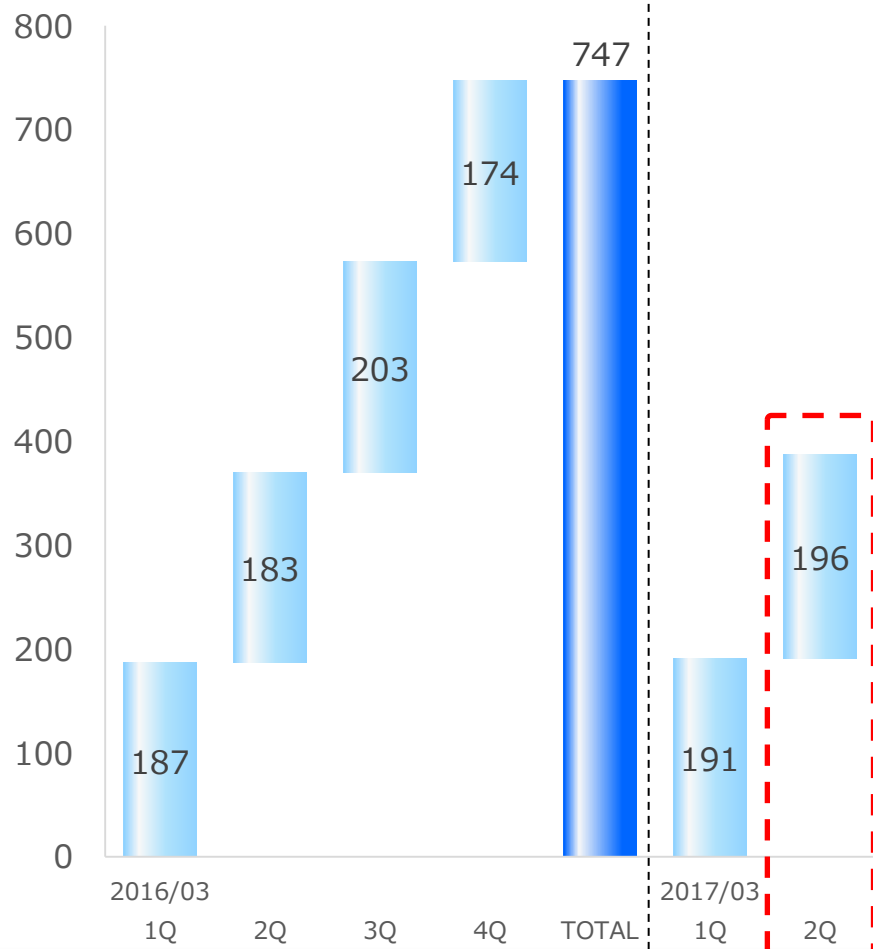
APPENDIX

제2분기 결산개요/연결요약(분기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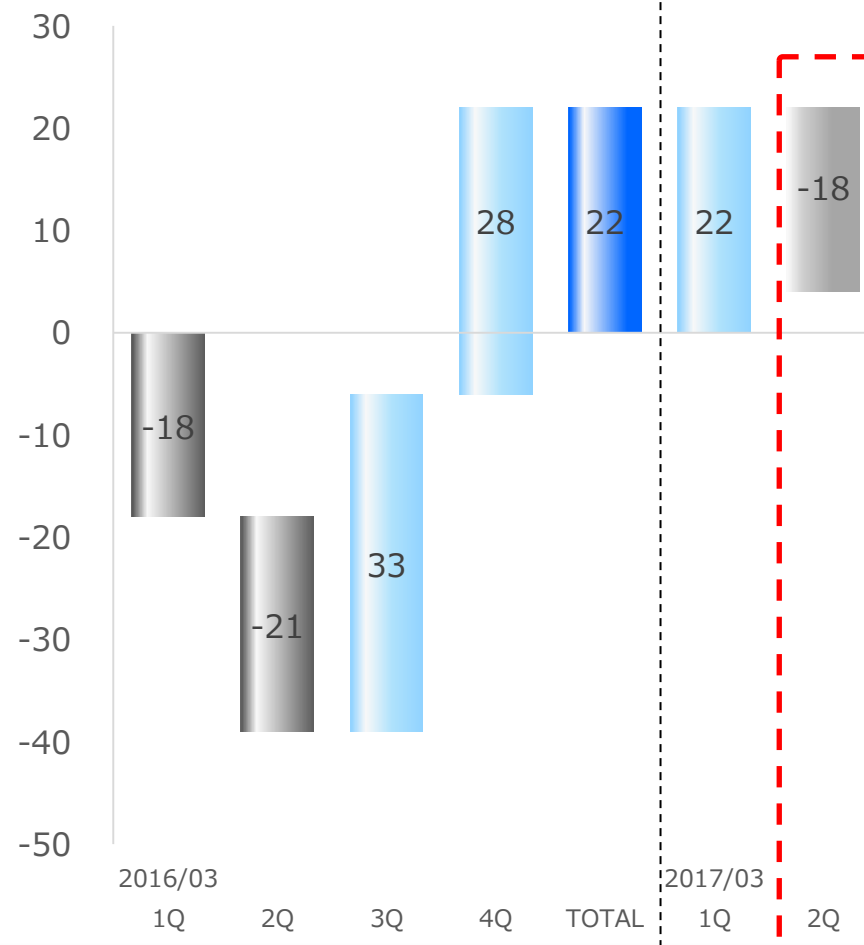
IFRS(미감사)

단위 : 억 엔

영업수익



영업이익



제2분기 결산개요/연결요약(전년동기대비)

IFRS(미감사)

	2016/03 2Q	2017/03 2Q	차이
영업수익	370억 엔	387억 엔	+17억 엔
영업이익	-39억 엔	4억 엔	+43억 엔
모회사주주에 귀속되는 분기이익	-35억 엔	-22억 엔	+13억 엔

제2분기 결산개요/부문영업수익(전년동기대비)

IFRS(미감사)

	2016/03 2Q	2017/03 2Q	차이
일본금융사업	51억 엔	46억 엔	-5억 엔
한국금융사업	132억 엔	131억 엔	-1억 엔
동남아시아금융사업	57억 엔	68억 엔	+11억 엔
투자사업	8억 엔	21억 엔	+13억 엔
비금융사업	112억 엔	106억 엔	-6억 엔
기타	10억 엔	15억 엔	+5억 엔
합 계	370억 엔	387억 엔	+17억 엔

※비금융사업 : 부동산사업 및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기타 : 본사·시스템·연결조정 등

제2분기 결산개요/부문영업이익(전년동기대비)

IFRS(미감사)

	2016/03 2Q	2017/03 2Q	차이
일본금융사업	19억 엔	26억 엔	+7억 엔
한국금융사업	-8억 엔	15억 엔	+23억 엔
동남아시아금융사업	-35억 엔	-28억 엔	+7억 엔
투자사업	8억 엔	6억 엔	-2억 엔
비금융사업	5억 엔	4억 엔	-1억 엔
기타	-28억 엔	-19억 엔	+9억 엔
합 계	-39억 엔	4억 엔	+43억 엔

※비금융사업 : 부동산사업 및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기타 : 본사·시스템·연결조정 등

월차 데이터 추이 2015.04~2017.03 « 속보치 »

단위:미만 절사

■ 일본금융사업

단위 : 억 엔

일본보증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채무보증잔액	2016년도	367	374	384	392	398	407	424	435	453	466	502	533
	2017년도	548	558	569	597	624	649	683					
(아파트론)	2016년도	6	7	14	20	21	28	38	48	63	77	92	121
	2017년도	145	156	186	212	240	264	287					

■ 한국금융사업

단위 : 억 원

한국금융사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합 계			2016년도	17,376	17,340	17,175	17,212	17,267	17,296	17,801	18,291	18,480	18,806	19,403	19,662
			2017년도	20,148	20,622	21,376	21,936	22,823	23,315	24,234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은행업 대출금잔액	JT친애저축은행	2016년도	11,027	10,814	10,674	10,762	10,723	10,705	11,049	11,434	11,524	11,715	12,085	12,143	
		2017년도	12,265	12,494	11,815	13,215	13,806	14,232	14,919						
	JT저축은행	2016년도	2,310	2,426※1	2,588	2,595	2,696	2,796	2,956	3,069	3,138	3,169	3,278	3,399	
		2017년도	3,681	3,868※1	5,243	5,626	5,754	5,725	5,783						
합계			2016년도	13,338	13,241	13,262	13,357	13,420	13,502	14,006	14,504	14,662	14,884	15,364	15,542
			2017년도	15,946	16,362	17,059	18,842	19,560	19,957	20,703					

【특이사항】※1 2016년 6월에 한국그룹 간 자본효율 최적화 목적으로 JT친애저축은행에서 JT저축은행으로 1,308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단위 : 억 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영업대출금잔액	JT캐피탈	2016년도	4,038	4,099	3,912	3,854	3,847	3,793	3,794	3,787	3,818	3,922	4,039
		2017년도	4,202	4,259	4,317	3,094	3,262	3,358	3,531				

【특이사항】※2 2016년 9월에 개정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인신용대출비용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2016년 7월에 계열저축은행에 개인신용대출채권 1,491억 원을 양도하였습니다.

■ 동남아시아금융사업

단위 : 억 루피아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 (BJI)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은행업 대출금 잔액※	2016년도	80,735	83,157	82,922	84,081	86,344	87,851	83,664	86,477	93,672	93,186	97,457	99,924
	2017년도	101,798	105,232	107,323	104,318	106,729	105,174	106,033					

【특이사항】※결산월 차이를 수정하였으므로 결산보충설명자료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 결산보충설명자료 2016년 3월 데이터 ⇒ 2015년 12월 BS로 집계

단위 : 억 루피아

PT Group Lease Finance Indonesia (GLFI)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GLFI잔액	2016년도	-	-	-	-	-	-	-	-	-	-	-	-
	2017년도	-	-	-	-	-	102	179					
BJI대출잔액 (GLFI관련)	2016년도	-	-	-	-	-	-	-	-	-	-	-	-
	2017년도	-	-	-	-	-	25	91					

➤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 잔액신장을 했을 때 미래이익이 더 크다

투융자잔액과 이익 시뮬레이션

